

제427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7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 1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윤철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

(11시06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공직후보자 구윤철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내내 여당만 보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마다 이를 기회로 바꾸는 위대한 국민들의 헌신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이루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발전은 추격경제 모델에 기반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지금 기존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새로운 전환에 멈칫하는 동안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 간 격차 심화 등 지금까지 이룬 것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서민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3년간 누적 8% 넘게 오르며 서민 생계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협상과 중국의 추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도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약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도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90년대 IT 혁명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는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합니다.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핵심 아이টে를 목표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টে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습니다.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 우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이슈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는 등 저출생·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0여 년간 경제관료로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조정 한 바가 있으며 퇴임 이후에는 지방 곳곳을 다니며 정책 집행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혁신하는 막중한 임무를 허락해 주신다면 대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한 세계 1등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팀도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동 청문회의 후보자께서는 국회를 존중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존중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존중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존중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를 통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맹세한 만큼 국회의 검증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391건이 미제출되었고 그 가운데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미제출된 자료는 81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청문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서둘러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불가한 자료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미 벌써 오전 다 왔습니다마는 오후 2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에게 딱 두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진짜 성장, 진짜 성장’ 계속 말씀하시는데 관료를 해 오시면서 그동안 하신 일은 진짜 성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가, 모든 부처에 공무원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지난번 제가 환노위 상임위 소위에서 예결산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여금이 60~120%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상여금 6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와 비교해 봤을 때 동일가치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해 와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최소한 내년 예산에서 국회 공무원근로자들의 상여금을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차별하지 말고 60%를 제대로 보전해 주길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6시까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회 보좌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성과 함께 국회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특히 정기국회 때나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 이런 기간에는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좌진들의 임금을 살펴보면 연가보상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국회 보좌진들의 수당과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인상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도 6시까지 기재부에서 잘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의사진행발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박수영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이 매우 부실합니다. 지금 저희 국민 의힘 기재위원들이 지명 이후에 총 1108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한 것이 391건, 매우 부실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그 절반 정도가 부실한 자료제출이거나 자료제출을 안 한 상황입니다.

첫 째로 후보자가 2022년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공직을 물러났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맡은 직책이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퇴직 후 이력은 6개에 불과합니다. 다른 이력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맡아서 무슨 활동을 했고 또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과정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 등 기타 신상에 관련해서도 술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능력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직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의 우려는 없었는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진두지휘할 위치에 가려면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 후보자께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퇴임 이후 경력과 부동산 등 재산 변동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역시 오후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정일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답변 받았고요. 그런데 상당히 미흡해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기재부장관, 기재부에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하고 기재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그 답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어떤 경우는 두 줄 질문에 세 줄 답변, 너무나…… 후보자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성과를 언제쯤 낼 것인지 이런 걸 질의했는데 거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동안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예산심사 때 자료 요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의 자료를 안 내놨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도,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자료 요구를 하고 했는데 기재부가 정말로 무책임하고 권한만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또한 너무나 무성의하게 왔습니다. 후보자가 안 보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되는 서면자료 답변 보면 324페이지·325쪽·326쪽,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협상 관련되는 답변 자료 332쪽. 세수 추계가 항상 틀립니다. 지난 2년 동안 90조 세수 결손 났는데 그때 가장 큰 원인이 세수 추계의 잘못인데 그것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 애매하게 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자료. 그다음에 기재부 개혁 기재부 분리 361쪽·362쪽, 경영평가제도 374쪽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오늘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저는 후보자가 언론에—자료제출입니다—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하는 이슈와 화두를 던졌는데 실제로 기재부장관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이게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닌지 아니면 기재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과 비전과 전략,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통상 협상 관련해서 산통부·외교부·국가안보실 진행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역할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두드러지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협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 부처 간의 갈등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트럼프 관세협상 대응 방향에서 국내적인 갈등 요소들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기재부의 준비 정도와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오후 늦게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장관후보자님, 혹시 조선이라고 무시하는 것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여당이라고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도 우리 직원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소명자료를 달라고. 얼른 소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삼성생명 사외이사 근무하셨는데—이것은 자료 요구입니다—거기에서 퇴직한 사유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왜 그쪽에 입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왜 퇴사를 그쪽에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의사진행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박수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요구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자료 및 자료 요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청문회 해 나가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진 위원 아니,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것은 기재부에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하람 위원님, 제헌절 행사 하느라고 좀 늦게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 아마 앞에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 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또 장관이 되신다면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하고 있잖아요. 보통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정부가 편성에 담길 예산 요구안 이것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5월 초에 출범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6월 초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내년도 정부 편성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편성 관련된 지침을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안이 5월 31일까지 요구가 왔었고요. 예산안 편성지침은 3월 말까지 나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새 정부가 바뀐 과정에서 국정과제가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가 빨리, 지금 현재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처하고 공식적으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마침 국정기획 분과장을 맡고 있어서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지침이나 과정을 봐야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좀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수추계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 너무나 많은 사고, 오류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걱정도 컸고 국회에서도 질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최하위등급 G등급으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실패를 자인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오차율이 8.4%, 30.8조 그리고 2023년도가 14.1%, 56.4조의 오차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 세수추계 정확도 어떻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거나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보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와서 점검해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민간위원들하고 세수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IMF나 OECD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AI를 장착해서 진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런 세수추계 정확도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하신 경제 대혁신 그러니까 급격한 경제성장률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재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런 점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경제 전반의 침체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환경변화의 측면도 있고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좀 더 여력이 있는 데 부담을 늘리고 조금 더 어려운 데의 부담을 줄여 주는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세제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가장 컸던 데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원래 소위 철 지난 낙수효과 가지고 진행했던 정책인데 결국 실패했지요. 이로 인해서 2023년 24조, 24년 한 15조 정도의 결손이 이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기업들은 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 투자 늘리는 것은커녕 오히려 사내유보금만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전 정부의 세제 정책에서의 오판, 실수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걱정만 세율로 합리화·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제가 세수를 점검해 보니까요 2022년도에 총국세가 396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344조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도 337조, 금년에도 아마 또 10조 원 이상의 경정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에서, 2022년도 100조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까지 40%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 소요는 아마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탈루소득이라든지 또는 과세형평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요, 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 국회와 여야가 이렇게 했었지요. 금융투자세하고 증권거래세도 연동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금투세는 아예 폐지를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미리 0.15까지 다 낮춰 놔 버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서로 연동해서 없었던 건데 하나는 아예 폐지를 해 버리면서 하나는 또 가장 낮춰 놓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러면서도 저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2012년도 4.8%의 상속세가 2023년 15%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가면 2030년도에는 80%가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처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여력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국가 경제 대전환 혁신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합리적 정상화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마이크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들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도걸, 죄송합니다.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하십시오.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일부러 제 이름을 강조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홍보가 확실히 됐지요?

○안도걸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제 나라 곳간지기가 되셨는데 나라 곳간 상태 한번 살펴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걱정 많이 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물려받으신 곳간 상태 좀 보십시오.

23년부터 금년까지 세수 결손, 전 정부에서 기인한 게 지금 97.5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17.6%네요. 8년 전으로 이게 퇴행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쌓아온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세기반이 불과 2년 만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정말 정부가 실탄이 없잖아요. 우리 부총리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한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데, 재정을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탄이 굉장히 부족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이 전 정부가 넘겨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재량지출 증가율을 1% 잡아놨네요, 재량지출 증가율을. 그리고 국세수입이 지금 4.3%거든요. 근데 국세는 지금 보니까 경제성장은 한 2% 정도 지속한다라는 거고 또 세수 결손분도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재량지출 증가율 1.1%라는 거

는 사실상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쪽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동결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정부가 사실상 미래 대비 투자를,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엉터리 같은 전제하에서 관리재정수지를 지금 3% 이하로 적자를 맞추겠다, 이거 억지로 꿰맞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현실과 동떨어지고 또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 물려받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부의, 새 정부의 어떤 경제철학 그리고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얼추 이런 비현실적인 전제를 현실화한다고 했을 경우 제 생각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한 5% 있잖아요, -5% 정도 또 국가채무비율은 저는 한 1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60% 정도로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 후보께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부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이제 만드시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기존 정부하고 차별화돼야 되겠지요? 소극적 재정으로 지금 안 되지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루빨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재정수지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매년도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좀 풀고 경제가 좋아지면 재정을 좀 긴축을 해서 경기변동 주기로 재정수지를 맞춰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주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사실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 위기의 돌파를 위해서는 쓸데는 써야 됩니다, 쓸 분야는. 그 대신에 또 줄일 분야는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타기팅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기팅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세수 확보의 정도는 결국에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세수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걸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당장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형클어진 세제와 세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세제상에 문제가 많지요? 지금 법인세율 인하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성장효과는 하나도 없었지요. 외려 투자가 줄어 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녁 없는 화살을 날린 거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유류세를 보시면 21년도에 도입했는데 그 당시에 80불이었어요, 배럴당. 그런데 지금 70불 아래로 내려갑니까, 배럴당?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신축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이런데 지금 상당 부분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는데 지금 금투세는 도입을 당장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의 합리화·정상화를 단행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긴요한 투자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투사업을 조금 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민투사업이 한 12조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 평균해서 한 6조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적인 자본과 운영 경험·능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제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성장펀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혁신산업을 투자하는 데 국가가 마중물 투자를 좀 하면서 대대적인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부펀드나, 국가펀드나 또 민자사업 활성화와 같은 민간투자 자원 확충을 위한 우리 부총리의 복안을 좀 제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세제 운영에 있어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계층은 부담을 줄여 주고 하는 강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세제 전반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간의 유동자금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생산적인, 정부가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민간에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 낸다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자금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국 경제의 자금 흐름까지도 진짜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구윤철 후보자님, 우선 경제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우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자료제출이 상당히 미비해서 질의 자료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모두발언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AI 대전환을 강조하시고, 보니까 후보자께서 직접 'AI 코리아' 책도 저술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우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기술력이라든지 AI 인재 또 AI 산업 기반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경쟁력이 취약하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순위로 매길 수는 없지만 세계 한 10위 정도, 그런 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AI 3대 강국, 사실 AI는 3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1등이 되어야 돼요. 각 분야, 어떤 분야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분야에서 1등이 돼야지,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택과 집중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우선 AI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니까, 내용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AI 분야를, 그러니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AI 분야에 관해서는……

○윤영석 위원 재정을 100조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해서……

○윤영석 위원 5년 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재정은 마중물로……

○윤영석 위원 저는 그게 과연 100조 원을, 민간 자본까지 해서 100조 원을 5년 동안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저는……

좀 더 과감한 투자와 또 민간의 역동성을 AI 분야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말 지금 같으면, 이렇게 AI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5년 동안에 100조 원이 아니고 민간의 역량을 다할 때는 그 10배를 투입해도 모자랄 판이예요, 사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윤영석 위원 그래서 좀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윤영석 위원 AI국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에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취임하게 되면 기재부의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신규로 만들겠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AI국을 하나 할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할까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윤영석 위원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AI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체적인 본인의 방향성은 제시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질문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후보자가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정부에서 확실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쪽으로 집중하실 것인지 개략적으로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가 가능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AI를 적용하는데 우리의 장점 있는 AI를 조선에 적용하는 것, AI를 자동차에 적용해서 AI 자동차를 만들고 AI로봇에 적용해서 할 수 있고 AI를 드론에 적용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AI를 전자제품에도 적용하고……

○윤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집중이 필요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더구나 저출산으로 향후에 노동력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AI로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AI를 적용할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올라갑니다.

○윤영석 위원 그리고 인구 감소 시기에도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거의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 할 정도로 제조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제조업을 앞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력 감소 또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킬 것인가, 경쟁력을. 그런 측면에서 AI를 제조산업 기반 전반에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AI를 제조산업 기반에 적용을 한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또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방금 드론·조선산업·자동차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

를 통해서 어떻게 상품의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AI 산업이 너무 경쟁력 위주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이차 전지 등 투자세액공제를 약 몇십조를 해 줬는데 전부 이런 산업들이 경기도 용인, 평택 또 충남권 이쪽에 다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AI 산업 전략을 함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척도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지방이 소멸하는 그런 쪽으로 이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AI에 대한 책도 저술하시고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AI 대전환의 시기에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을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노동생산성도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AI를 활용한 공정 프로세스, AI를 활용한 장비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적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제가 AI를 조선에 적용하는 데도 사실은 용접로봇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정확한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것도 해결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정책을 해도 경쟁력 있는 산업이 안 따라 가면 절대로 지역이 안 됩니다. 제가 지역을 거의 1년 이상 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부울경 같으면 어떤 지역산업 발전시킬 때 AI를 부울경의 가장 장점인 어떤 산업의 어떤 품목에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그 AI 접목도 산업 전체가 아니고 산업 중에서도 어떤 아이템,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저는 규제도 없다, 인력 무조건 다 투입하자, 돈도 무한 풀자, 낭비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다 쓰자 하는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석 위원 그것을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서 굉장히 특화시키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성공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윤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박홍근 위원님이나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안도걸 위원님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두 분이 계속적으로 법인세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피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기형 위원 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니, 먼저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박홍근 위원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임이자 하셨어요? 충분해요?

○박홍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후보자님, 이번에 첫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전에 김민석 총리후보자한테 똑같이 질의했던 걸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란 하고 수습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내란에 방조하거나 가담 의혹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헌법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늘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계속 묻고 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께도 계속 이야기드리고 곳곳에 있는 기재부 일을 하셨던 분들, 그동안 기재부의 오만과 무책임 또는 불통, 거짓 보고 등등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시작과 끝이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들은 세금 문제부터, 잠깐 감세정책부터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감세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치로 보면 총국세가 396조에서 계속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성장도 계속 줄어드는 이게 현상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줄어드지요. 금년에 와서는 투자도 줄어듭니다. 안 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감세를 하더라도 뭔가 하여튼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냥 감세만 해 주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 정책은 저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기형 위원 그런데 말만 감세정책을 하고 실제 1.4% 그다음에 2.0%, 올해 1.6%였다가 지금 0.8까지 가서 다시 회복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시기인데 실제 경제정책도 실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단으로 썼던 감세정책은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서 감세정책을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일단 제가 되면 한번 어떻게, 감세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95조, 22년도에 296조 됐다가 작년에 33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자체가—아까 답변할 때 말씀하셨지요—100조에서 40조 정도가 빠진 60조 정도 됐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 근로자 소득세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근로소득세가 확장된 게 아니라 법인세가 너무 감소돼 가지고 나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감세정책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

기본적으로 감세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 법인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하여튼 응능부담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오기형 위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적어도 원상회복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박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투세 도입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그 논쟁 과정 속에서 결국에 시행을 못 했지만 금투세 도입의 전제로 증권거래세 폐지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유보한다면 당장의 세수 지금 이게 수조가 빠져 버렸는데 증권거래세는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좀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적어도 긴 호흡에서는 과세 형평, 공정 과세를 위해서는 금투세라는 것은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결정을 해서 바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세수가 크게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지 않으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를 회복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써서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당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들 의견이 다양한데 논쟁의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 50억에서 10억으로 했다가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그 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자, 공정 과세, 그다음에 손실과 이익을 좀 상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과세를 좀 풀어 주는, 즉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기는 했었지만 적절한가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정상화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상화로 가되, 최근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소영 의원이라고 저희 당의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걸 기계적으로 바로 도입할 것인가는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세효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세수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가 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세정책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자본시장을 일관되게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0조 이상의 감세를 했는데 그 감세정책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버겁다, 그리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고 국민들께 그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번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함께 이 부분을 주저 없이 설득을 하면서 같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고맙습니다.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 요즘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쓸 돈은 많은데 공간은 비어 있고, 또 벌이는 그렇다고 좋냐? 그것도 아니고, 벌이도 시원치 않고. 지금 이런 양상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접근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벌이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벌이를 좀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이 성장률 문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성장률도 가장 근간이 되는 잠재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또 경제 성장률이 있을 텐데 당장에 무슨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도 있을 거고 또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때로는 이게 충돌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단기적으로 성장을 올리다 보면,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지 않는 단기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충돌이 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난 정부 3년 동안 사실은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분야의 암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암흑기의 실상에 대해서, 공간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벌이는 시원찮게 돼 버렸고 또 쓸 돈은 많아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제 당국은 냉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먼저 보고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혹시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지고 국민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보고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아까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도 우리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잠재성장률의 약화 이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니까 지금 잠재성장률 결정되는 게 노동, 자본, 기술. 한테 기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떨어졌고 생산성도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요. 자본도 최근의 기업 환경 여건으로 자본 투입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초혁신 경제로 가야 됩니다.

○조승래 위원 초혁신 경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래서 기술을 확실하게 올리면은요 자본 투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니까요. 노동의 생산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게 한국한테는 가장 비전이 있다. 한국이 기반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AX, AX는 한국은 암묵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제조업을 해 오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 잘 활용하면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노동생산성도 높이고 자본, 생산성 다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 모든 분야가 점점 망가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정부는 민간이 앞서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방향은 정부나 민간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AI를 적용한 대전환 다 알고 있는데 민간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규제도 있고 또 정부가 각종 재정·조세 정책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정부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자, 진짜 최대한 이것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제도를, 그러니까 규제 제도 같은 걸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인력을 공급해 주고요.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인력 공급이라든지 인재 양성·육성 시스템을 잘 만든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수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수 구조가 붕괴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저는 우선 세수·세입 구조의 붕괴 이것을 회복하는 조치부터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에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아까 AI를 활용해서 세입추계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엇그저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국세청에서 세정 관리에 대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알리바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갖춰지면 어렵다, 그게 안 갖춰지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세정 시스템을 AI 전환하는 데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혹시 세수추계 시스템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추계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마 국세청 시스템이 굉장히 큼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크지만 저희들은……

○조승래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추산하고…… 혹시 실무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런데 지금 그게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해 주시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데 그거는 ISP라고,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축한 게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 AI 전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복잡하고 핵심적인 현안과 문제들을 다 AI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해결된다고 AI 핑계를 대는 구조로 가서는 곤란하겠단, 이게 제가 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짜는 것도 사람이고 그걸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역량을 키워 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그 AI가 노동생산성을 높여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어떤 문제의 해결 능력을 높여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재부장관은 어쨌든 부총리를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경제 부처든 혹은 사실 사회 부처도 마찬가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모든 부처에서 어떤 AI 정보를 도입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AI 정보를 도입할 때 반드시 이 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인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 대전환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해 봐야 됩니다. 쟁선 황이 금년 1월 6일 날 피지컬 AI, AI 대전환을 얘기했는데요. 각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한국도 하자, 실행을 하자, 실행하는 데 문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과감하게 투입하고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 타기팅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으로 가면 저는 가능하다, 대한민국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저기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천하람 위원 배고픈 시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후보자 내외분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혜경 여

사 내외하고 삶의 궤적이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지마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은 아파트 단지의 바로 옆동에 사셨더라고요. 후보자,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몰랐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두 분, 후보자 배우자분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1966년생 동갑이시고 같은 시기에 숙명여대를 다니셨는데 혹시 두 분 아는 사이는 아니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는 사이 아닙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첫째 자녀분도 빠른 92년생으로 대통령의 장남 또 후보자의 장녀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천하람 위원 혹시 그러면 어떤 공식 행사, 큰 대규모 행사 이런 데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 만나신 적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같은 단지에 사시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로부터 초밥이나 한우나 과일이나 이런 거 혹시 같이 나눠 먹거나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시면 혹시 친명 7인회의 일원이라고 손꼽혔던 경기 광주시을 출신의 임종성 전 의원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의원님으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국회에서는 뵈는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따로 통화하시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필드글로벌이라는 회사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알지요.

○천하람 위원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여기 업체가 보면 임종성 전 의원한테 성형수술 비용 등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 그리고 인조잔디 납품 비리를 저질러서, 조달청에 1600억가량의 납품 비리 저지르고 500억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혐의로 재판과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산실장 하실 때 이 필드글로벌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방문하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스포츠센터가 아니고요……

○천하람 위원 광주시에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곤지암에 있는 야외 스포츠시설입니다.

○천하람 위원 예, 스포츠시설, 뭐 스포츠센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거기 가면 야구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를 간 겁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혹시 주중에 가셨습니까, 주말에 가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주말에 갔습니다.

○천하람 위원 혹시 기재부 예산실의 동료 직원들이 후보자가 필드글로벌의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에 가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그거는 주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다 온 거지요, 현장 방문 차원에서.

○천하람 위원 여기가 광주시에서 조달청에 굉장히 대규모로 납부, 뭔가 조달하는 회사 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때 가실 때 차량은 뭘 타고 가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차량은 거기 회사에서 같이 줌, 내가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깐 같이 가자고 해서요 그냥 같이 타고 갔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업체 필드글로벌 대표가 보내 준 차량 타고 같이 가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같이 갔습니다. 대표가 보내 준 차량이 아니고 대표랑 같이 갔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때 JTBC 보도에 의하면 필드글로벌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경기도 광주시의 힘을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윤철 예산실장을 우리 사무실로 불러라. 광주시에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라는 인터뷰를 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불러서 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는 그런 내용은 알지는 못했고요. 그냥……

○천하람 위원 누가 불러서 가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니까 그 대표가 같이 현장을 한번 가 보자 해서 그냥 스포츠시설에 한번 둘러 본 겁니다.

○천하람 위원 이 대표들이랑 그럼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특별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예산실에서는 각종, 누구든지 지자체가 되든 누구든지 이렇게 한번 가 보자 하면 시설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산실에서 누가 가 보자 하면 업체에 그렇게 쉽게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업체를 간 게 아니고요 시설을 간 겁니다. 스포츠……

○천하람 위원 우리가 예산실장은요 저희 의원들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스포츠시설을 간 겁니다. 스포츠 현장에……

○천하람 위원 단체장들도 예산실장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분인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시설을 둘러보고 시찰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중에 가셔야지 왜 대표 차 얻어 타고 주말에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주말에 시간이 나서 그냥 한번 가 보자 해서 그냥 가 본 겁니다.

○천하람 위원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시장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없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없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때 경기도 광주시장 인터뷰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혹시 선서하신 거 명심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없고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광주시장이 어디 행사 들렀다가 온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제가 떠날 무렵에 잠깐 와서 얼굴 보고 온 거, 진짜입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러면 얼굴 보신 거잖아요. 방금 안 왔다면서요? 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왔지요. 광주시장이 와서 만난 거지요.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요, 와서 만났고. 이분도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실장이면 상당한 요직인데 실력자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에 맞춰서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주말에 업체에서 업체 차를 타고 그 업체 현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시장까지 불러 가지고 시장 와요. 시장 입장에서는 ‘어유, 예산실장님이 여기를 왔네’.

이것 업체 대표가 부른 겁니까, 아니면 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부른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그냥 업체 대표가 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가 보자 해서, 야구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야구장·축구장 이렇게 잘되어 있구나, 이런 것 해 놓으면……

○천하람 위원 이 업체가 당시에 대규모로 조달 참여하고 있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건 저는 잘 몰랐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기재부 예산실장이라는 분이 공식 일정도 아니고 예산실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료 직원들이 아는 일정도 아니고 주말에 알음알음으로, 그걸 국회의원이 불렀든 업체 대표가 불렀든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대 주는 차 타고 가서 그 업체 둘러보고 같이 사진 찍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달비리, 심지어 국회의원에게 뇌물 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업체예요. 이런 데 이렇게 예산실장이 함부로 다녀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2018년도에 갔는데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때부터 이미 조달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산실장이 거기 와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부른 거겠지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때는 진짜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체육시설이 있다 해서 그냥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주말에 한번 가 보자’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주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예산실장님 부르면 제가 부르는 대로 지역예 와 가지고 저랑 같이 업체 다니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위원님이 또 맞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

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 사정을 모르고요. 현장에 있는 스포츠시설을 한번 가 보자 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이런 걸 지역에 많이 해 놓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무슨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 업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시거나 특혜를 받으신 것은 전혀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전혀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조달에 대규모 참여한 업체고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업체입니다. 게다가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까지 불러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봐도 내가 뒷배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이 업체에 휘둘러 다니신 것만 해도 저는 고위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그냥 스포츠시설을 가 보자고 해서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현장 한번 둘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고요.

그 이면에 있는 걸 다 계산한다면 저는 아예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지자체장도 못 만나지요. 그러면 이분도 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러면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못 갑니다. 위원님,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 이후에 거기 업체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진짜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다니실 거면 주중에 제대로 해 가지고 정식 절차로 다니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예산실장은 바빠 가지고 가끔은 또 주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정을 일일이 모르니까 그런 점 있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진짜……

○천하람 위원 당시 예산실장 업무 중에 여기를 꼭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꼭 가야 할 필요가 아니고 스포츠시설이니까요. 스포츠시설이 잘돼 있다 하니까 한번 가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국회 공무원들 상여금 문제와 수당 문제를 다른 부처와 차별하지 않도록 그것을 꼭 해 주십사, 제가 기재위원장 치열하게 뚫고 온 이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보좌진들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연장수당, 포괄임금제

해서 35시간밖에 안 줘요, 보좌진들을. 보좌진들은 공무원들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6시까지 긍정적인 답변 기재부에서 해 갖고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승래 위원 장관도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해?

○위원장 임이자 기재부에다 해 갖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위원장 임이자 그래요,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박수영 간사님, 퇴임 이후 경력 상세히 제출하고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상세 내역.

정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위기 극복 방안 관련 답변 제출. 두 번째, 트럼프 관세 협상 대응 방향 관련 자료 제출. 세 번째, 세수 추계 오류 원인 및 대응 방향 등 관련 자료 제출. 네 번째,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 관련 자료 제출. 다섯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첫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개념 비전 전략 등 구체화해서 설명. 두 번째, 통상 협상 관련 기재부의 두드러진 역할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자료제출. 세 번째, 관세 협상이 진행되며 부처 간 갈등 등 국내 갈등 요인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 정리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근무했는데 입사 이유와 퇴사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답변이 왔는데요. 6시까지의 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사유서 제출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이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오전 중에 사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자료제출 요구를 못 했습니다. 잠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양당 원내수석님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유상범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후보자님, 기재부 예산실장까지 하셨으니까, 기재부에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을 1000억 주십시오’ 하면 ‘그 1000억을 달라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합리적이어야지 기재부에서도 서로 논의가 되고 그러지요.

지금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12년간이나 오송에 있는 아주 소규모 의약외품 제조업체에

서 소위 관리약사로 근무를 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또 언론에서도 면허 대여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를 하는데 비상근직으로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 명의 대여는 아니고 비상근 근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근 근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비상근 근무를 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배우자에 대한 비상근 근무에 대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의 대여냐, 비상근 근무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출근 기록 및 근무일지 자료, 제품 제조 일정 및 생산 기록, 통근 자료 이런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배우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약사법 위반행위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불법을 용인했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성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보자는 비상근직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거기에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거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것 다 제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출근하셨으면 출근 기록이나 근무일지 자료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회사니까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관련된 출퇴근 기록이나 또는 배우자 명의의 관리일지든지 뭐든지, 제조공정에 관여했거나 업무에 관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좋으니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좀 여의치 않다면, 그것조차도 널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차로 통근을 했을 테니까 KTX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면 톨게이트를 패스한 내역 그런 자료라도 기간 중에 있는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몇 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확인하는 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유상범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확인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금일 6시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지명 축하드리고,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그동안 기여한 역할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 후보자께서 한국방송통신대 석좌교수직을 재직하셨는데 보니까 22

개월간 300만 원씩 66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방통대에서 는 특강 3회, 회의 1회, 행사 2회, 총 6회를 활동하셨어요.

이 내용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그 외에도요 각종 자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자문하신 게 많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회에 참여도 했고요.

○유상범 위원 석좌교수인데 자문을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석좌교수가 자문을 하는 게 주 역할 입니다.

○유상범 위원 석좌교수는 자문을 하는 게 역할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석좌교수라는 게 학생 강의를 위한 강좌를 교수 직으로서는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석좌교수는 다른 대학도 대 부분 학교에 자문해 주고 학교의 어떤 발전 방향 이런 쪽에 하는 게 석좌교수들의 대부 분은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 그러면 방통대에서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사실은 국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방통대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신다는 것은 학교의 입장에서 보 면 기재부2차관 출신의 고위직을 모셔 왔을 때는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 예산을 확 보하거나 또는 기재부 대상에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대학 재정 사업 을 추진하는 데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충분한 의 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자문 내용을 내 가 확인할 수는 없어도, 이게 사기업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석좌교수라고 하셔서 ‘석좌교수는 자문만 한다’ 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요, 위원님. 자문만 한 게…… 강의도 했 고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강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강의도 하고……

○유상범 위원 22개월 동안 3회 강의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3회 강의를 아니고요.

○유상범 위원 특강 3회 하셨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이건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는 1회 하셨고 행사는 두 번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외 개인적으로 확 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 의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 성남시 분당구에 살 당시에 무안 소재 농지를 한 300평 사신 게 있어요, 배우자께서. 사신 건 내용을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재산 신고할 때 알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뒤늦게 알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로워요. 이게 소위 말하는 1200평의 논을 일곱 차례 쪼개기 매매가 된 사안이고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안군 일대에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나중에 돼서는 기업도시 개발은 좌초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해당 농지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2016년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이 참 조심하잖아요. 모든 생활을 조심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누가 봐도 투기의 행태입니다. 가서 농사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답변 좀……

○유상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당시에 2003년도부터요 주 5일제가 되면서 도시민의 영농체험, 주말농장 등으로 인해서 1000㎡ 미만은 정부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인 5명 정도가 같이 투자를 한다 해서 영농체험을 위해서, 왜냐 하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업이 뭔지, 쌀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많이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 1시간, 2시간 이내지요. 분당에서 무안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가서 영농체험을 했다고 하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이게 사실은 논이거든요, 논.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농사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니까 영농체험이라는 게 모내기할 때 가서 보기도 하고 도시민들은, 어떤 경우는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쌀나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범 위원 좋은데요. 그게 무안군 일대에 사신, 2004년도에 살 때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지 않았으면 그 해명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지정한 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저희들은.

○유상범 위원 당시가, 그러니까 사고 나서 말이에요. 사고 나서 이런 지정이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사고 난 뒤에 지정이 되었고요.

○유상범 위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샀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면 소위 절대농지를 샀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농

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입니다.

○**유상범 위원** 자,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논이지만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고 그 직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 하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컸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무안군이라는 아주 먼 곳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잡종지나 밭이나 이런 것 샀을 겁니다, 위원님.

○**유상범 위원** 어차피 이게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고 기업도시가 되면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절차는 다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이게 논이기 때문에 절대농지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유상범 위원** 절대농지 불가능하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농업진흥지역,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당연히지요. 지금이야 기업도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 기업도시가 포기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3000만 원 투자해서 다섯 사람이 하는데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사람이 영농체험을 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고요. 이것도 또 팔 때 1000만 원에 팔고, 그것도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논입니다, 논.

○**유상범 위원** 아니, 체험을 가까운 데서는 할 수 있지요. 그 멀리서 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그런데 가까운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논 체험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로 투기 목적 없었고요. 진짜 3000만 원 투자해서 다섯 사람이 조금씩 하고 그것도 규정을 지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기할 생각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러면 잡종지나 이런 것 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말을……

○**위원장 임이자** 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먼저 후보님,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 자리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재부장관은 부총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욱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에 겹치기 근무다, 예산 갑질이다, 부적절한 특별보좌다, 부동산 농지 이런 등등 의혹들이 많이 줄지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얏나무 아래서 갇힌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오늘 아마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40여 년 가까이 경제 파트에서, 기재부에서 헌신과 업무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난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안을 보면 지금 현재 기재부가 문제가 되는 미국과의 25% 상호관세, 방위비 분담금, 저작권 환수 이슈 이렇게 모든 이슈가 몰려오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경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 또 기재부 자체의 세제 정책 중에서도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고 방치해 두었던 상속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꽤나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한의 정치 대립도 워낙 단골의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중에서 또 통괄 부서다 보니까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런, 어떻게 하면 양 날개로 갈 수 있을지도 또한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런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은데 결국은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난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진짜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저출생·고령화도 이슈지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되고 있지 않지요. 또 국내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계층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 있지요. 노인 문제 있지요. 청소년 문제 있지요. 장애인 문제 있지요.

○이인선 위원 맞습니다. 너무 난제가 많고요.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단순히 지표를 보고 서둘러서,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세력, 실소유자 가리지 않고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밝고 앞서가는 자산가들은, 현금 부자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에 의한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월세가 옮겨 가고 오르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서민들은 대출받지 마라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강남, 수도권 이런 쪽은 이번에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번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은 그야말로 조용히 몰래 뒤에서 강남 재테크를 하고 있었다고 서민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가 재정건전성까지야 바랄 수는 없지만 지금 다가오기 시작하는 부동산발 초양극화 우려를 전체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단파적으로 가면 그 피해는 결국은 현금 가진 사람은 피해 갈 수 있고 서민들은,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제가 늘 염려가 많은데 이번에 어쨌든 여당의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이런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을 지금 시행했고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 정책을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하는 소비·투자 재정 선순환 0.68, 이전지출에 대한 경우에는 0.2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줬는데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 가지고 SOC 등에 투자를 해서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쪽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좀 막기 위해서 했고요. 실수요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6개월 이내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실수요자만 주택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만 저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그다음 성장률도 0% 내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하에서 소비쿠폰을 통해 가지고……

진짜 지방에 가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당장 견뎌 낼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이것을 SOC를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돌아서 돌고 오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시간 회임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이것을 싸 줘서 이분들이 진짜 체력을, 당장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단계적인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숨을 쉬게 하고 여기에다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업종별로 경쟁력 제고를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단순히 돈 주기보다는 R&D를 통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도록 해서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되새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신상 개인적인 것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투기하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 역량 파트인데요.

아, 신상 개인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한 분입니까, 대표이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대표이사는 한 사람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게 비상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조직이 꽤 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비상근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근무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정일영 위원 많이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특히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축제가 많고 이러면 내려갈 일이 많고 이래 가지고요.

○정일영 위원 그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경북지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도지사입니다.

○정일영 위원 이철우 지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아시지요?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모두발언, 인사말씀 보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전면적 대혁신, 진짜 성장, 주식회사 대한민국, 국민주권, AI 대전환,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좀 더 실질적으로 경제를 언제 살릴 수 있는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기재부장관이 왔으면 경제가 좀 좋아지겠지……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잘 챙기니까 한 1년 안에는 좋아지겠지.

어떻게 보십니까? 한 1년 안에 성과가 좀 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오늘 인사말에는 비전을 보여 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꺼져 가는 소비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소비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1년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1년 안에는요 꺼져 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정부안에는 진짜 확실한 방향을……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때 이 어려운, 지난 3년 동안 경제가 거의 엉망이 됐는데 ‘아, 경제가 좋아졌구나’라고 언제쯤 느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일영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빠리가 언제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최대한……

○정일영 위원 생각하실 때,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시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한테 어떤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위원님……

○정일영 위원 대답을 끝까지 안 하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빨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국민들의 입장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민생경제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중소기업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내년 성장률, 지금 성장률이 너무 안 좋아요, 거의 제로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내년 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도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제가 공기업 관계, 제가 기재부 상대로 국감도 하고 자료제출 요청도 하면 제일 자료 안 내는 게 예산실이에요. 예비비 가지고, 내년 예비비를 얼마로 할

지 알려면 작년, 금년에 얼마 써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내요, 하나도. 이런 기재부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공공정책국. 공기업이 거의 300개, 예산이 정부 예산보다 많은 팔구백조 돼요. 그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 달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하여튼 저는 위원님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요.

○정일영 위원 아니,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낙하산, 알박기. 제가 민주당의 내란은폐알박기 인사저지특별위원장 했는데 이게 98명이에요, 98명.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53명이나 임명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부장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그 운영위원들, 지난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좀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제가 봤습니다.

○정일영 위원 받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제가 지적했는데 지난 2월 달에 내란 탄핵 중에 임명되고 평가기준 만들고 위원들 임명하고 경영평가위원들 임명하고 평가해 가지고 지금 A·B·C등급 다 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개편하려고 좀……

○정일영 위원 개편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모두발언에 보면 4쪽에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용-수익 개념이라는 것은 대개 공공기관, 특히 정부도 공공기관도 보수 정권, 보수 정부에서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수익성이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진보, 우리 민주당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든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든 공공성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럼요.

○정일영 위원 수익성·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맞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 기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도 만들고 낙하산, 특히 알박기, 그 관련된 것 제가 법안도 내서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하고 맞추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런 모든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4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업무역량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거나 국정철학이 안 맞거나 방향이 안 맞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만두셔야지요.

제가 조금 전에 들으니까 LH 사장이 사의 표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주요 기관장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거취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재부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 바꾸는 거라든지 경영평가기준 다시 한다든지 전부 다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정책국이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좀 해야 됩니다, 자료 안 내고 다 숨기지 말고. 그것 관련해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모두발언에 보면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재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갑 중의 갑 부처, 다른 부처에서 볼 때는 거기 예산실 과장·국장들이 다른 부처 차관들을 우습게 안다 할 정도로 기재부가 막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 부처, 기재부 공화국, 기재부 정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기억하시지요, 후보자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하여튼……

○정일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십시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고 다른 부처들이 신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부처다, 기재부가 우리를 도와주는 부처다, 후보자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국민에 대한 봉사 또는 지금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은 공무원이라고 한 이유가요, 일단 저도 민간에 가 보니까 공무원들의 행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행태가. 설령 못 내면 못 내는 이유라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행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재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최대한 바꾸도록, 조직문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공공성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을 잘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공기관의 인사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 차원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합리화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후보자의 신상 문제가 별로 없어 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나와서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무안의 논 문제, 부인께서 그 논을 공동으로 산 게 2004년 1월인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때 3500만 원 들여서 지분 일부를 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걸 판 것은 언제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판 것은 2016년으로 되고요.

○진성준 위원 2016년 8월 그러니까 12~13년 가지고 있었던 건데 팔았을 때 받은 돈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35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주고 팔았으면 250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12년 만에. 그게 투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투기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결과가 투기가 아니에요. 어떤 땅을 십몇 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이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책 질문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대미 관세협상을 통해서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걸 꼽으셨어요. 미국과의 관세협상 참 문제인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후보자도 같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제가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하나도 안 물리는데 한국은 미국산 물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세를, 4배 이상 물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가 없습니다. 실효세율을 보니까 0.79%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보다 4배나 더 많은 관세를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협상의 선결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며칠 전에는 주한미군이 4만 5000명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 무상으로 군사 지원하는 거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자기가 방

위비 분담금 올려 놓은 것을 바이든 행정부 때 한국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깎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도 사실이 아님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사실관계 자체를 오해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외 통상외교를 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이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고 협상을 하더라도 해야 협상의 입지가 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세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을 주문한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하는 얘이지만 검토한다 이런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진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지금 후보자 신분에서 일단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가 나름의 선의로 시행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합시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경제는 망가지고 세수 기반마저 무너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원상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서도 유의할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응능부담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고소득자, 자산가 또 대기업 이렇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데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세제 전반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동시에 조세지출도 살펴야 합니다.

조세지출이 너무 방만해 가지고 국세감면율이 이미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정 한도를 지키도록 새 정부에서는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법정 한도가 넘어지는 사유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GDP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필요한 데는 지출하고 또 필요성이 줄어든 데는 줄이고 하는 이런 강약을 통해서 제가 조세지출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국세감면을 법정 한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라고 하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능부담의 원칙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런 원칙 속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확인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세액공제 또 투자 세액공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이 경우에 공제를 해 주어서 국내 생산능력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지방 기업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 이런 안인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국내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제 것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시간에서 30초 빼고 진성준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실 것은 없고. 다른 분들은 1분씩도 넣어 주시던데……

그런데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말 8월 초가 되면 다음 연도의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진성준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령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되면 곧 7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제개편 방안들을 담아서 발표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속도를 내 주시고 그 안에라도 미리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딱 30초 쓰셨네요.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기재부장관은 우리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몇 분 중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타의 모범이 되거나 투명성이나 청렴성에 있어서 정말 표본이 되어야 할 자리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그래서 공직에 임하는 자세와 처신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필드테크라는 업체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그 답변하는 과정에 후보자님의 처신에 대한 의혹을 좀 더 증폭시키는 답변들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주시장이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없었다라고 하셨다가 천하람 위원님이 재차 물어보니까 ‘제가 간다고 하니까 광주시장이 어디 행사 들렀다가 온다고 해서 떠날 무렵에 잠깐 와서 얼굴 보고 간 것,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갔을 때 없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최은석 위원 갑자기 말씀 바꾸시지 말고, 속기록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요……

○최은석 위원 잠시만요.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은석 위원 사진 한번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총 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당시의 광주시장입니다. 지금 이 자세가, 지금 여기 사진 찍힌 여러 분들이 서 있는 거나 이런 것을 보시면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없었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와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간 거라고 하는 그 말씀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진짜 마지막에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게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인사하고 가는 그런 포즈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는 이 사진은 마지막에 와서 하면서…… 기억에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18년도니까요.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이것 너무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입장을 바꾸시거나…… 지금 여기 청문회 자리가 국민들이 볼 때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오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진을 보고 누가 처음에 없었다 아니면 마지막에 와서 잠깐 인사만 했다고 하는 그 말 누가 믿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정확한 팩트는……

○최은석 위원 답변 조금 이따 하십시오, 답변은 서면으로 제시하시고.

이거는 광주시에서 광주시의 공식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면 굳이 광주시장 입장에서 구윤철 후보자께서 포함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뭔가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그 당시에 기재부의 예산실장이라는 분이 광주시에 왔다 하는 것들을 뭔가 어필하려고 이 사진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추측하면 그렇지요? 그것도 당연히 필드테크라고 하는 그 업체, 나중에 조달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업체의 현장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주시에서 이렇게 올린 목적 그리고 이 시간에 후보자님이 이 자리에 계셨던 것 보면 어쨌든 뭔가 투명하지 않은 처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주말 휴일에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공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렇지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일정이라기보다는요 여기가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최은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지요. 여기 방문 시기가 10월인데요. 10월에 예산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사업장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이게 민간……

○최은석 위원 이게 정기국회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렇지요, 10월 달이? 이듬해 예산 업무로 되게 바빴을 텐데 이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조달과 관련된 비리가 있는 업체 현장을 가는 게 예산실의 공무원으로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것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당시에 10월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말에는 갔었고, 2018년도……

○최은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예산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합니까? 10월 달에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업무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의 업장에, 현장에 방문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개인적인 업무, 현장 방문……

○최은석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해당업체의 공공조달 원가 부풀리기, 뇌물 사건 이 업체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2018년에 갔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다음 한번 보십시오.

2017년부터 이미 이 회사는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 특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불법 의혹이 있다고 해서 특별조사를 요청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몰랐다면 기재부 예산실장으로서 이렇게 언론에도 나고 경기도지사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이런 업체에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방문한 것이 그 당시에 예산실장으로서의 처신에 정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거기는 업체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스포츠시설입니다.

○최은석 위원 아니, 그 업체가 하는 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예산실장으로서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도 확인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재부장관으로서 누구를 만나시거나 할 때 그런 범법행위가 있거나 국가의 조달 관련해서 특혜행위가 있었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

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당시……

○최은석 위원 그 처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최은석 위원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경기도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가 요청돼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분명히 ‘2018년에 갔을 때 그때는 그 회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전 중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오전 중의 답변은 그 당시에 다른 국회의원님 관련된 일은 그 뒤에 발생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최은석 위원 좋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다음이지만 이렇게 그 업체가 이미 불법이나 특혜로 의혹이 많이 있던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를, 10월 달 그 바쁜 시기에 기재부 예산실장이 그 업체가 하는 사업장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제가 묻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신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현장을 제가 방문하는 거 그것 외에는 진짜, 진짜 없었습니다.

○최은석 위원 아니, 후보자님 지금 이런 데 대해서 계속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고위공직자로서 앞으로 기재부장관을 맡아서 수행할 자질과 역량이 되는 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계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현장 방문한 게……

○최은석 위원 현장 방문 업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1600억 정도의 조달 비리를 저지르고 국회의원한테 뇌물을 준 업체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언론에 문제가 됐던 업체인데 예산실장이 이런 거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업체를 방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돼요?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건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최은석 위원 사후적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그때……

○최은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뇌물 혐의로 비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를 장관이 되신 다음에도 만나시겠어요,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그런 사실을……

○최은석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런 사실을 미리 알면……

○최은석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 돌리시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정당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주말에 현장 방문 차원으로……

○**최은석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주말에 대한 핑계를 대시잖아요.

10월 달이 정기국회가 열리고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대부분 바쁜 시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이미 특혜 이런 의혹으로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고, 경기도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요청한 업체의 대표자가 하는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시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앞으로는 하여튼 처신에 매사 조심하고 진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후보자님,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셨을 텐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재부 일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국회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낮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론론적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최기상 위원**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계엄 사유로 든 경제에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에 기재부 관료들과 당시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 관료들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 빼고 뒤에 앉아 계신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은 그대로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기재부 공무원들의 일에 관련해서 신상필벌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취임하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 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퇴임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기재부에 좀 관심을 안 두고 민간, 일반 지방 이런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은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최기상 위원** 관련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당에 있습니다. 저도 기재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는 안타까운 이런 기사들이에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나라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같은 날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일가족 4명이 발견되었다’ 화요일에는 ‘일가족 3명이 발견되었다’, 그중의 일부는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죽게 하고 본인들의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2014년 송파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이 비극이 끊이지를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표로 정리해 놔는데 이걸 언론에 나온 정도입니다. 대부분 생활고 때문이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난이 문제 돼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나라라고 평가하십니까? 후보자, 어때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그 일을 해소할 주체가 누구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모든 정부기관이 다 해소하도록 노력……

○최기상 위원 정부가 해야 되고 이걸 결국 생활고 문제면 돈의 문제거든요. 여기에다 돈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정부 예산은 기재부 돈도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가장 먼저 써야 되는데 그동안 안 썼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애먼 데 돈 쓴 거지요. 왜냐하면 이걸 봤더니,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이런 일가족 사망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의 또 이유는 무엇인지 통계도 없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겉으로 그럴듯한 통계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현재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에 대해’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지나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10년 동안 8명의 아이들을 지켜본 기록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물림되는 가난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교 가서 대부분 잠을 잔다는 평가를 받는데 우리 교육제도에서 교육 문제 논의할 때 이런 문제 논의를 하지 않지요. 가난한 아이가 자라서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장년이 되고 가난한 노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 때까지 존엄한 나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안 되면, 노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이것 해결할 주체 정부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신경을 쓰는 정도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으로 해결됐으면 진짜 해결이 됐지요.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정부

를 만들어 낸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께서도?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미국 최고의 아동살인범은 가난이다. 가난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 정도 목표는 세워야지 새 정부 아닐까 싶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가난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최소주거기준 미달가구 그중에 아동 주거실태에 관한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준비가 안 됩니다.

최소주거기준, 뭘지 대충 상상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서울에만 해도 아동가구 중에 주거빈곤가구가 15%나 된답니다. 경기도는 6.9%고요 전국적으로는 주거빈곤아동이 94만 명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긴냐 하면 요새같이 더운 여름에 샤워할 수도 없는 공간에서 살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틀기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가지요, 한마디로.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다른 공무원들이나 어른들이 성장을 먼저 운운한다? 저는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 만한 게, 당연한 게 모르거든요.

최근에 이런 현장을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는 이런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최기상 위원 좀 보셨어요? 보셨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치려면요 통계를 정확히 내고 목표를 1년, 2년 단위로 만드셔야 됩니다. 올해 주거빈곤가구에서는 아동이 100만 명이면 내년에는 90만 명으로 만들겠다, 내후년에는 80만 명으로 만들겠다 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는 이것을 얼마나 줄이겠다라고 숫자를 만들어 내고 그걸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경제성적표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경제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에 따른 혁신경제를 통해서 장밋빛 비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저가 단시간 내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재부는 단숨에, 단순간 1년 만에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 경제가 수준이 이렇고 지난 3년간의 경제성장률, 국가 재정 그다음에 적자, 수출입 감소에 따라서 단기적인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현황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후보자 견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희들이 저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확한 진단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국민들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협조를 받을 부분은 또 협조를 받고 하는 그런 소통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첫출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경제·미래·성장률 다 지금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유념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과 24년 역대급 세수 핑크가 보시듯이, 2014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보면 23~24년에 대략 87조 정도 세수 핑크가 나서 결론은 감액 추정도 못 했고 그러면서 불용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결정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던 과정이고, 그래서 25년도 그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세입정정을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실제로는 감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부 5년간의 기조를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3년 걸쳐서 18조 정도의 감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 시기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아까처럼 세수 부족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거기 사는 분들조차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우리 집이,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세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본인들도 의아한 과정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 정부가 1981년부터 2024년까지, 22년부터 국세수입이 고꾸라져서 우하향으로 나오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

서 세금을 걷으면 어렵다'라고 보는 후보자의 관점이 저는 틀리지 않고 그러면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구조화된 우하향의 경제성장의 이 기초를 무엇을 통해서 바꿀 것인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우리 과세 기반이 너무나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응능부담이라든지 또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탈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초혁신 경제를 통해 가지고 진짜 경제를 살려서 그래서 세수가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지만 국민들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장기 또는 단기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정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 장 한번 보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예측과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국내외 주요기관의 올해 성장률을 보면 당초의 2% 예측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0.8%에서 1%.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비전을 줘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장밋빛이 아닌 것 같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계·기업·정부가 고통을 감내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혁신경제를 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만 그 상황에 대한 서로의 공유의 출발을 부총리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총리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 분석하는 것은 진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 공감대를 받을 부분은 받고요. 이것만 끝나서는 또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경제가 글로벌시장에서, 세계에서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품목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협조받을 부분은 받고 또 정부나 기업 또 모든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기술자들 다 합쳐서 할 부분은 진짜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구윤철 후보자 축하드리고 우리 구윤철 후보자님은 보니까 평판은 아주 좋으신데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적하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얘기한 적

이 있어요, 2020년.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것 왜 그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마 기재부의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자들……

○권영세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때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25년 4월—올해 4월이지요—당대표 시절에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에 왕 노릇하고 있다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 얘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진단할 때 하여튼 복합적으로 기재부가 일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보니까……

○권영세 위원 아니, 지금 진단할 때가 아니라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지적하면,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

○권영세 위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기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서 일단 예산 기능 분리하고 이런 것을 할 텐데 경제부총리가 되실 분이라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또 국정기획위는 과도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둘을 뿔었는데 하나는 검찰이고, 그것은 이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리라 보는데 기재부를 거명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재부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쌓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후보자는 과도 권한 가졌다고 동의를 하십니까, 여태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기재부에서 예산·조세 정책 틀이 많다 보니까 아마 또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행태가 아마 기재부가 또 수요자 중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 시절, 2022년이지요, 지난번 대선 직전이지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예산을 기재부에서 분리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빼려다가 오히려 더 세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와는 생각이 다른 얘기를 표현한 건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사를 찾아봐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그 기사를 저도 찾아봤는데 제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또 그런 부

분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취지 자체는 기재부가 달라져야 돼서 수요자, 고객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기재부는 모든 부처, 모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권영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이 되시기 전이든 후든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에 경제부처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적은 있었나요,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직은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서요.

○권영세 위원 대선 때 캠프에 정책 부분에서 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정책만 좀 관여를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정책 중에 정부조직 관련 부분도 정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정부조직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기재부가 과거에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비판을 받은 것이 틀림없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재부가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통괄하는 입장에서 힘이 다 빠지면 통괄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의 기를 살릴 건 살리고 또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도개선 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재부가 되도록 제가 장관이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원 기재부 기능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데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오히려 예산 쪽으로 가셔야 될 분 같아요. 거의 대부분을 예산 쪽만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닙니다. 저는 정책 조정도 했고요 그리고 고……

○권영세 위원 국무조정실장으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 근무할 때는 거의 예산 쪽에 계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기재부에 근무할 때 예산도 조정했지만 다른 부분도 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주니어 때 빼놓고는 거의 예산 쪽에 계셨던데……

그런데 지난 정부에,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당시의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이나 장앤김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인가요, 거기가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다투다가 2018년에 아주 이례적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둘 다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제가 들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당시 갈등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그 부분이 맞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여러 가지가 아마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주 이유로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하준경 경제수석은 모두 다 거시경제라든지 금융 쪽 전문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는 주로 예산 쪽에만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처에서는, 총리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 국가부채가 얼마 정도인지도 잘 모르는 완전히 경제에 문외한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부총리가 다 책임을, 임명이 된다면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이게 대통령실하고 적절한 균형점이 찾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시키는 것만 일을 하다가 나중에 책임만 쓸 우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협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든 기재부든……

○권영세 위원 물론이지요. 물론 다뤄서도 안 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또 지배해서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서로 협업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되시면 잘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은 다음번 질문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30초 빨까요?

○김영환 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이쁘시면 30초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 신뢰를 얻고 최근에 보니까 한 달 만에 한 360.5조 정도 시총이 커졌더라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2주 만에 144조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말로 표현하면 ‘민주주의가 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고 민주적 토양이 잘 형성이 되면 그 신뢰만으로도 경제는 심리 문제를 타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지난 비상계엄 사태 때……

지금 최상목 부총리 수사받고 계시지요? 받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부분은 제가……

○김영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문형배 재판관 말입니다, 헌법재판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에 재판관이 한 열몇 명 있는데 3명 이상을 수도권 외, 그러니까 빈 외에서 임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어느 지역에 주로 근무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혹시 스티글리츠, 주류 경제학자인데 2010년에 쓴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영환 위원 후보자께서 어디에 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은 개포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개포동에 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기재부 부이사관 이상 어디에 사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자기 삶의 터전에서 자기 생활의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게 스티글리츠 얘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주로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주식시장은 주로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아까 최소주거기준이 모자란 아이들 현장에 가셨다고 그랬는데 기재부는 과연 그동안 어떤 사고와 어떤 철학적 바탕하에서 경제를 이끌어 왔는지, 세법은 어떻게 고쳐 왔는지, 재정정책은 어떻게 해 왔는지,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런 계집단적 사고 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난 3년간, 아까 권영세 위원님께서도 초기 얘기를 하셔서…… 22년 그때 한창 어려울 때 추경 했지요. 저희들이 추경 요청을 막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 19조인가 제가 기억을 해요, 돈 없다고 해서. 그런데 바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몇 조 추경 했어요? 60조 했습니다, 60조. 몇 달 만에 돈이 남았어요, 그렇게? 기재부가 왜 그렇게 변하지요?

조세정책, 제가 24년도 조세부담률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 GDP가 24년 기준으로 2556조, 그러면 OECD 평균보다 얼마 모자릅니까? 여기서 보면 한 7.4%, 계산해 보면 한 180조 돼요. 우리가 OECD 평균입니다, 평균.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제출된 세법들이 주로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어 왔는지……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 의도와 목적이 항상 뒤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세제개편 후에 이 감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는데 이전까지 제가 중위소득 150%를 봤거든요, 기준. 그런데 갑자기 평균 임금의 150%를 언급하더라고요. 평균 임금 150%를 계산해 보면은요 백분위 중에 7~8%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 밑을 다 서민이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귀착효과가 더 간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쓰더라고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숫자에.

그래서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지금 본인이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국회도서관에서 나온 ‘불평등 50선 지표’입니다. 이 책을 공짜니까 가져다가 책상 위에서 매번 지표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지표도 있어요. 이를테면 기후위기가 와요. 인플레이션 효과는 5분위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1분위가 더 크겠습니까? 물가에 다가오는 그 불평등의 효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1분위가 당연하게……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다. 저출생 이 효과는 또 어디에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각종 경제 정책 결과의 지표들은 다 사회통합지수로서 후보자가 염두에 두고 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어디에 갈 건지를 정말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다음 한번 봐 주세요.

이건 국민 부담률이고요, 여기는 더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하고 ADB하고, 이게 IMF 저널입니다. 그쪽에서 주최한 건데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지출을 늘려야 된다. 세법, 재정 정책, 경제 정책, 통화 정책까지 다 함께 뭉뚱그려서……

○김영환 위원 1분 더 주시면……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같은 공공의 투자라도요, 여기서 인텐션(intention)은 뭐냐 하면 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비교 대상을 선진국 35개국 그다음에 개도국, 신흥국 138개국을 비교했어요. 어떠한 질적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대단히 달라져요. 그러면 기재부의 관료 조직이 어떻게 이 질적 투자를 정말 기획하고 고민하는 데에 따라서 이 효과는 매우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부패 지수가 당연히 높으면 안 되지요. 지난 3년간 그랬습니다. 잘 안 되지요, 이런 거는.

기재부가, 이 논문들을 잘 한번 후보자가 살펴봐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 진짜 귀담아들겠습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발전을 하려고 하면 소외계층 또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들을 안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진정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어떤 따뜻한 경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혁신 경제를 동시에 추진해서 진짜 한국이 살 만한 그런 국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마이크 좀 당기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좀 당겨 주십시오. 이 앞쪽으로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다뤄 봐야 될 정책들을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그냥 제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후보자께서도 계속 우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원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세계 지원이 있고 금융 지원이 있고 인재 양성의 인프라를 만들고 또 규제 혁신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요즘 보면 첨단산업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간 대항전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대항전이라고 하는데 특히 자본의 규모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각국이 조성하는 자금이 또는 지원하는, 그게 정책 자금이 됐든 여러 가지 민간 자본이 됐든 간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지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도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지금 세액공제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조금도 있고 직접 환급도 있고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조 규모의 국부펀드를 공약을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리고 저도 법안을 내놔습니다마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이게 있고 그다음에 기통과된, 기 갖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도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이게 이제 확실하게 추진이 돼야 될 텐데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안 날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연되잖아요. 우리가 10년 장기 이연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익이 안 나면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지원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세액공제 이연 시 정책금융과, 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기재부는 부정적이에요. 10년 이연해 줬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정책효과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세액공제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그렇게 되면 금방 이걸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다른 또 추가 투자에 대한 여력들을 만들어 낼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국부펀드와 관련해서도 대만의 NDF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여기에 87년도에 TSMC를 만들 때 1억 불 투자를 했고 그때 지분 48%를 가졌었는데 이게 지금은 다 팔고 6%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가치로 치더라도 53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531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런 유형이 뭐냐 하면 경제개발형, 국부펀드의 경제개발형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재정안정형이 있고 경제개발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도 이런 유형의 국부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도 국내주식 비중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의 성격상. 그다음에 KIC는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국부펀드를 정말 실효성 있게 잘 구성을 하고, 이게 우리 전략산업들에 투자하고 또는 벤처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개발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게 대단히 많은데, 이래야 우리가 미래형 투자 국가로 갈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규제혁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규제완화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규제를 혁신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시장에서. 이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일자리도 늘었고 투자 규모도 늘었고. 그런데 이걸 특정 품목, 특정 기술에 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메가 샌드박스로 확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교육·금융·R&D·산업인력·정주여건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메가형으로 이 샌드박스를 도입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지역에는. 이런 형으로 우리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도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지방소멸에도 대응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산업 혁신도 촉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임죄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게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주식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배임죄가 이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불안 이것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배임죄로 인해서 모험투자, 장기투자가 위축되는 이런 염려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 상법에서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에서는 요건을 매우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차원에서 이 배임죄와 관련한 어떤 방침을 가질 것인지 또 지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이 주신 의견 진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상법 이번에 저희들이 주주이익을 위해서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또 이사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배임죄로 걸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거나 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책임 특히 배임죄라는 게 굉장히 확장 개념입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상법에서 굉장히 줄여 주고 형법에서도 아주 특정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반드시 가야만 주주이익 강화 또는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이고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이 주신 국부편드라든지 또……

○김태년 위원 그래도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허락했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법인에 이연율

해 준다 했을 때 이익이 안 났을 때는 계속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금융하고 연계한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가 국부펀드를 진짜 개발할 수 있게, TSMC를 대만에서 만들 듯이 우리도 해보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도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요. 다만 그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AI를 활용한 AX 개념으로 해서 아이템으로 지금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개발된다면 지역에다가 하나씩 주면 진짜 지역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세계의 메카가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품목별로 해서 권역별로 샌드박스를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 제가 지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성과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저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초메가 샌드박스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 줘야 됩니다. 샌드박스가 20개니 30개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1개가 제대로 되면 2개가 제대로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샌드박스를 만들고 그게 또 메가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정책을 해 볼까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이걸 현실화해서 시장에서 성과가 나도록 할 것이냐, 성과주의에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숫자를 늘려 나가기 보다는 진짜 제대로 되는 하나를 발전시켜서 그게 모멘텀의 시발점이 되고 또 다른 샌드박스가 성공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경제사령탑 후보로 지명된 걸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 지적된 내용들 보면 처신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2018년 광주 스포츠센터 방문하신 거요. F사라는 회사, 초청하고 차까지 내 주고 한 그 회사가 6년 동안 1479회에 걸쳐서 1665억 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질러서 기소돼서 재판되고 있는 사실은 아시지요? 뒤늦게라도 아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기재부 예산실장이 스포츠 시설을 보러 갔다, 첫째. 이것 아주 이례적이고…… 무슨 이유로 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스포츠 현장을 한번 보러……

○박대출 위원 스포츠 현장을 기재부 예산실장이 보러 간다, 문화부 체육국장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기재부 예산실장이 이런 스포츠 현장 가는 것 사례가 없습니다. 각 시도별로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민생 현장에 가서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요한 정책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지 스포츠센터에 간 사례가

없어요,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기재부 예산실장이라는 신분으로 이런 업체를 방문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그런데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최은석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회사의 직원이—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을 인용했는데—‘경기도 광주시의 힘을 보여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윤철 예산실장을 우리 사무실로 불러라. 광주시에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풀리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초대한 그 업체가 납품 비리를 저지른 시기가 바로 2018년 10월부터예요. 2018년 10월이 언제냐, 방문한 시기하고 겹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일이 잘 안 풀리다가 이 시기부터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된 거예요. 무려 1665억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이 회사의 입장으로서 사업이 술술 풀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으로 나올 때 부당이득도 얼마로 산출이 됐냐 하면 509억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후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납품 비리 그리고 부당이득의 길을 깔아 준 셈이 돼 버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신이 바람직했나, 부적절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앞으로는 처신을 더욱 조심하라는……

○박대출 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의 처신이 바람직한 거냐 부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당시에는 진짜 제가 그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안 갔을 텐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출 위원 기재부 예산실장이 스포츠시설에 단순히 안면으로 가고 연고로 가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인 방문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천하람 위원님이나 최은석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런 납품 비리가 발생하는 사안까지도 어쨌든 난 겁니다. 시기적으로 겹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여쭙볼게요.

무안 농지 있지 않습니까. 무안에 연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고도 없는데 여기에서 영농체험을 할 생각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집사람 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거기다가 영농……

○박대출 위원 지인들이 그 당시에 무안 일대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거기 투자하면 괜찮겠다,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권유가 있었던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거는 아니고 몇몇 지인들이 논을 투자하는데 같이 좀 하자 하니까 집사람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박대출 위원 영농체험하러 뭐 타고 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영농체험하러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박대출 위원 영농체험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뭘 타고 가셨냐고 물어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마 차로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뭘 타고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차, 자동차로 갔지 않았나……

○박대출 위원 차로 346km예요, 지금 검색해 보면. 346km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꽤 과속을 해야 4시간 걸리거든요. 거기 4시간 걸리는 곳까지 영농체험을 하러 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이것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1분만 더 주시면 이것 이어 갈게요.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대출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레버리지(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대출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레버리지(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후보자 본인의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에 관한 한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하신 겁니다. 혹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저는 저런 형태를 통한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2007년 3월 13일 성남 백현동 택지용지 9억 4900만 원에 취득했지요? 이때 대출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본인 대출과 배우자 대출을 합쳐서 2억 2500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주상복합건물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배우자 앞으로 담보대출 4억 6800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경매로 8억 9100만 원에 낙찰받았지요. 그때 이 대출금이나 백현동 세입자 보증금 활용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아파트 재개발할 때는요 그 이주자……

○박대출 위원 아니, 제가 여쭙보는 것은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냐라고 지금 묻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레버리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그건 레버리지가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니까 주로……

○박대출 위원 내가 하는 건 레버리지가 아니고 남이 하면 레버리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때 백현동…… 제가 이것 진짜 자산 증식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막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제가 있는 예금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은행대출, 보증금 받아서 하는 것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자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 놓고 본인이 똑같은 그런 일을 한 데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먼저 축하말씀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감사합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열여덟 번째 공약이 될 줄 혹시 아십니까? 바로 기재부 조직개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만약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대통령 공약에 대해 답변하기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기재부 조직개편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힘이 더 세질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오해가 있는 기사의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힘 빠려다 더 세질 수 있다’, 마치 이재명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기사 제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기재부라는 게 기재부 GOD태를 바꾸지 않는 한은 기재부의 모든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기재부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하여튼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였지 이재명 후보자의 주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도 최근에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분명한 생각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공약인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물론 본 위원은 기재부 조직개편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서면질에 대해서 지출한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톱다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재원을 배분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설되는 예산처는 재원 배분회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는 게 조직개편의 핵심인데요.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실은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실이 모든 부처의 예산사업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재원을 배분하고 그렇게 배분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재원배분회의가 도입된 이후 당시 기획예산처 정해방 재정기획실장이 총액예산제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요즘 기획예산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때 각 부처에서 예산 설명을 하러 기재부로 쫓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재부 조직개편의 본질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가장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보는데 후보자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임명되고 나면 이게 가져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게 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배당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들은 종합과세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들은 분리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 특성상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늘린다고 노력은 했는데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또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해서 실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세재정연구원, 이 제도에 대해서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세수의 손실만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또한 상장기업의 배당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당시 정책 효과가 아니라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도 조세재정연구원은 짚은 바 있습니다.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야말로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되어 버리고 말겠지요.

지금 같은 재정 여건, 아까 후보자님께서서는 AI 대전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자폭 행위다, 자해 행위다, 이 제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효과 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약간 긍정적인 취지로 초기에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효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상법 개정안 발의해서 통과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어떤 효과를 좀 본 다음에 감세가 명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과거에 제기된 문제 또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기획재정부 공무원 시절에 이런 분이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후보자 중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알던 후보자는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비록 야당 위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던 전남 무안군의 논에 대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체험을 위해서 구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고 얼마나 자주 영농체험을 가셨는지 혹시 증빙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그게 논입니다. 논이라는 것은 모내기 시절에, 아마 여러 사람이 가서…… 모내기를 얼마나 도시민이 잘 할 수 있었습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의 영농체험을 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몇 가지 의혹들 중에서 특히 겹치기 근무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1년 10개월간 약 693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했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기홍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라든지 금품수수, 횡령 등의 의혹에 연루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기홍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체부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했었는데도 후보자가 자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분이 그런 추진 한다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절대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혼자서 이렇게 문체부가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한 재정, 재정 규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말은 무식한 소리’라는 그런 주장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민들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건데 정부가 또 지원을 줄이다 보면 그분들의 부담은 늘어나서 그분들의 고통, 국민들의, 소외계층의 고통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께서는 기재부2차관 시절에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재정의 기능은 첫째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재정건전성, 두 가지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두 가지 가치입니다.

한데 지금 제가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때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정 분야는 과감하게 넣어서 이게 선순환이 되고 줄일 부분은 또 줄이자. 그래서 오히려 돈을 쓰고 성과를 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장관이 된다면 하여튼 여러 부분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이 방향으로 가서 장기적으로는 잘했다, 그때 돈을 쓴 게 진짜 국가에 오늘의 모멘텀을 가져온 계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50%가 안 된다, 다른 나라는 100%가 넘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은 100%가 넘어가는 그런 준기축통화국이나 기축통화국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특히나 급속하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요. 또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국가채무, 저희는 D1을 가지고 IMF나 OECD가 쓰고 있는 국제적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로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재정건전성 그리고 재정준칙 그리고 재정 규율에 대한 강한 소신을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고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에도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에 국가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신용등급 하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특히나 이 부분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재정 중독에 대해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은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당 일부에서는 3차 추

경, 3차 소비쿠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을 할 분야는 성과가 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분야는 가능하면 좀 재정을 효율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1차·2차 추경을 집행을 해서 진짜 성과가 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균형은 맞춰야 되는데……

○박성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간사님.

어제 박수영 간사님 먼저 했으니까 오늘은 정태호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부총리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가 크고요.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질의를 주 들으면서 느낀 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조세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이 붕괴됐다는 것이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었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 당시에든 재정운용을 통해 가지고 아마 목표는 경기 선순환을 위해서 했을 겁니다. 한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실은……

○정태호 위원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태호 위원 공정성과 건전성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붕괴된 조세재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저도 훼손이 된 부분은, 경쟁력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또 경쟁력 있는 부분은 더 강화를 해서 성과 나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예.

특히 개별 조세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법인세, 증권거래세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등 이런 개별 조세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강한 주장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 검토 결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기술주도성장 이렇게 표현돼 있었는데 기술선도국가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장 전략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야 국민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제, 민간도 그렇고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술선도국가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기술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AI 시대로의 전환 그게 핵심과제라는 것은 분명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새 정부, 이재명 정부는 AI 세계 3강, AI 선도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선 향후 2년에서 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AI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AI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버넌스가 확보돼야 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처의 업무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면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뭐 했는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정부의 각 부처가 AI 정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ISP, 그러니까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고 필요하면 또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것 다 거치다가는 2~3년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결국 정말 AI 시대로의 대전환, 모두의 AI 시대를 만들려면 정부가 가장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2~3년을 이런 절차를 지키다가 시간을 다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AI 기술개발이라든지 AI 대전환에 있어서 거기에서 저해가 되는 규제가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하면 대폭 개선해서……

○정태호 위원 아니, 저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정부 내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정부가 전환하는 데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거쳐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 하는 데 벌써 2년, 3년이 지나갈 것이라는 거지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걱정해서 제가 부총리후보자에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예를 들면 전면적인 예타 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엄청난 공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국세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절차들 때문에 당장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국세청장후보한테 질의했을 때 현재 AI 관련 예산이 겨우 2억 8000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AI 정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의 준비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예산과 그다음에 절차상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과감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인사말씀 중에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없더라고요. 통상협상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 제3차장이 경제안보를 담당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안보가 있을까요? 그런데 신임 부총리후보자의 인사말씀에서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없어서 경제안보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융합해서 경제안보 쪽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 아마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용어가 누락된 점이 있지만 결코 그런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경제안보의 개념을……

저도 1분 주세요. 아까 주셨잖아.

○위원장 임이자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저 주시고 박수영 간사님 주시고……

○위원장 임이자 나중에……

○정태호 위원 30초만, 마무리지을 테니까요.

경제안보가 통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공급망이라든가 기술유향이라든가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에서의 기술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안보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기술력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통상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경제안보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박수영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우리 경제수장으로, 후보자로 오시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유능한 경제관료 출신이 오시게 돼서 한편으로 기대가 큰데 한편으로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과연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곤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 기획예산처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도 하고 그래서 경제를 보는 눈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확인 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이게 인플레이니까, 디플레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직까지는,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19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2차관 때 ‘경제 수축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써야 된다. 철철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 말씀은 돈을 쓰되 될 만한 데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되지 않을 데는 확실하게 줄이고 하는 강약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정부 돈을 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란, 커피믹스, 맛김, 광어, 우럭, 분유, 수박. 수박 한 통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한 3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한 3만 원 하지요. 작년에 2만 원 하던 게 3만 원 하고요, 평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외식물가지수는 25%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게 2020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지요.

개별 물가는 더 오른 걸로 체감되고 있는데 후보자님 말씀하시던 차관 때, 2019년 그때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을 펴부어도 된다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돈을 펴부으면 물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장재정을 편안하게 외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우리가 추정 하면서 국가채무를 많이 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 국가채무 전체의 합이 626조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통계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확장재정 하면서 한 정부에 5년 동안 440조를 폭증시켜 가지고 우리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는 시대를 만든 것이고 그때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컨트롤 되다가 다시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1301조의 D1 그리고 49.1%의 GDP 대비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D1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비기축통화국하고 늘 비교를 해 왔고 이거를 기재부도 늘 유지해 해 왔던 것이거든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이 까만 선이고 우리나라가 빨간 선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올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드디어 추월하게 되고 또 속도를 보시면 비기축통화국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써도 된다, 확장재정을 해도 된다, 팡팡 물이 넘쳐 나도록 써도 된다 이런 시각은 지금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 더 문제가 있는데요. D1에서 D4가 있는데, 우리 학자들이…… 그런데 기재부는 지금 D1 기준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D2하고 D3는 발표를 안 하거나 아주 늦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D1은 보시는 것처럼, 후보자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게 D1이고 D2가 국제 비교에서는 일반정부와—IMF가 이걸 쓰고 있지요—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이지요. D3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것이고 D4는 군인이나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친 광의의 개념인데 기재부는 계속적으로 D1으로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 발표도 계속 D1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미스리딩(misleading)하다. 다른 사람, 잘 모르는 분들, 정치인들한테 우리 재정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입수할 수 있는 D2부터 D4의 최대의 자료는 2023년인데 D4는 그때 GDP 대비 이미 124%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적립 부채, 즉 D4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민연금법 개정하면서 군인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도 국가의 책무로 보상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1820조나 되는 국민연금 부채까지 합산하면 우리나라 D4는 제 추정으로는 GDP 대비 약 200%를 돌파해서 이게 미국보다 더 높고 일본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스탠더드가 D2면 기재부도 이제는 D2로 발표 좀 하십시오.

제가 D2, D3 추정치 달라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온 답입니다. ‘별도의 추정치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도 훨씬 더 많고 연금충당부채도 훨씬 더 큰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D2로 가는데 우리는 D3, D4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기재부가 D1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평소하던 대로 하는 거든지 아니면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역부러 보여 주

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것, 답변은 좀 이따 들을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계부채……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겨도 상관없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부채비율이 평균 11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45%는 추정 하기 전의 D1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110% 넘는 거는 D2 기준이에요. 즉 기재부가 D1을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평범한 나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110% 넘는 나라들은 평범한 나라들이 아니고 기축통화국, 그중에서도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유로는 89%, 110% 안 넘어요. 영국은 104%, 110% 안 넘는단 말이에요. 평범한 나라가 아니고 기축통화국 중 일부가 110%를 넘는 겁니다.

즉 기재부가 정확하게 발표 안 해 주니까 이런 미스리딩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확장재정으로 돈 풀 때가 아니라는 거를 후보자께서 명심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아까 정태호 위원님……

○박수영 위원 1분이 아니라 이제 답변이라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들어 보고 모자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국가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이 이게 광의의 개념으로 국가부채를 잘 관리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은 경제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서는 물가 등 감안해서 가능하면 확장재정을 하지 말고 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가 문제되는 부분은 일부 생활물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점검해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대한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생활물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장재정 하겠다는 것은요 특정 아이템, 한국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 ‘진짜 그때 투자 잘했다’ 하는데 지금요, AI 대전환해서 지금 이 시기 놓치면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진짜 잘 좀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국가부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 시각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현금 살포, 이것 방금 후보자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지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산성 떨어지고 있고 잠재성장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에서 우리 경제가 파이를 키우는 데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개인적으로 현금 지출 이것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질의에서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부분도 나중에 질의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오늘 제일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AI 대전환’하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퍼플렉시티 AI한테 진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가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겉으로는 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불안, 불신, 자존감 결핍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히 말버릇이나 대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 AI가 가짜고 거짓말을 많이 하네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는 AI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시대적 소명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이자 아니,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딱딱한 분위기에 너무 AI, AI 하시니까 AI를 전부 다 전 국민이 맹신할까 봐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진짜, 진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진짜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2차관 하시고 국무조정실장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정책들이, 부동산정책 스물세 번 이상 정책 발표를 계속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 통계 조작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도 신문에서 그런 얘기……

○위원장 임이자 아니, 신문에서 봤든 국무조정실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급격한 최저임금이라든가, 혁신성장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좌파 학자들도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만 대폭 증원했고 더 나아가서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화해 준다 했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귀결된 겁니다.

기재부제2차관도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국무조정실장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책임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때 당시에는 가짜 성장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가짜 성장이라기보다는요, 가짜 진짜라기보다는……

○위원장 임이자 진짜 성장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진짜 성장이라는 것…… 제가 진짜, 이제는 성장을 어떻게 시키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임이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아까 AI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지금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으로는 일단 AI 대전환을 꼽았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오늘 이 인사말씀을 보게 되면 AI 대전환 말고는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돼 있는데,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해야 될 다섯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첫째는 국가 경영을 진짜 기업 경영 하듯이 수익-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사업을 투자했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성과를 못 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성과를 내고 성과를 못 냈을 때 뭐로 갈 것이냐. 가장 효율적인 게 한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AI를 활용한 산업 대전환, AI를 활용한—우리는 가전제품, 제조업이 뛰어납니다—제조업의 생성 증대고……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AI 대전환을 하나로 보고요. 다섯 가지만 꼽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원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진짜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도 같이가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기업 따로 놀지 않고 정부 따로 놀지 않고 기업,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 대학 모든 게 가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지역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켜야지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성공하지요. 말만 지역균형 발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국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정부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든 부분이…… 우리의 경쟁 상대자는 누구

냐? 미국, 중국 소위 10대 손가락 안의 국가들하고 경쟁입니다. 그들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장관이 된다면 기재부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가 진짜 한번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제가 구윤철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을 때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실패한 경제 정책을 했고 그 중심에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분을 왜 대한민국 현재의 경제수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실사구시 정책을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 구윤철 후보자를 임명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하시는 답변을 들어 보게 되면 그 정도 답변은 밑에 있는 과장급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진짜 대한민국, 아까 계속 국민들의 최대행복을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인 공리주의자는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럼요. 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행복을 이루자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절대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섯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먼저…… 좋아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신성장동력을 AI로 삼는다 칩시다, 아까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실물경제하고 금융자본 산업하고 봤을 때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만 건강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실물경제보다 금융자본이 몸통이 돼서 갔을 때는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경제가 오히려 꼬리가 되어 가지고 가다가는 우리 경제 박살 납니다. 그러면 실물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경제수장으로서의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2탄으로 더 세계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정말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제가 제대로 살아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은, 경제수장을 총괄하는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성장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저 한 편에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주 4.5일…… 주 4.5일 근무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보전하고, 주 4.5일 근무했을 때는 어디서 노동생산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제3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2조의 사용자 개념의 확

대 이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고.

그다음 세 번째, 아까 계속 기술 기술 말씀하시고 AI AI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술 실업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외협력 아니면 대외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대안이 나와야 되고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도 말씀만 뱅뱅뱅 돌았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 갖고 15만 원에서 많게는 58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지급되기로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15만 원씩만, 대한민국 상위 2%만 계산을 해도 100만 명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100만 명에 15만 원이면 사실 큰 효과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100만 명에 15만 원이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기재부 잘 들으세요, 뒤에 있는 기재부 직원들.

대한민국의 플랫폼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후보자님?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0만 정도로 기억……

○위원장 임이자 400만이지요. 그거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가 400만인데요, 협의로는 한 8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근로기준법 안으로 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먼저 이분들이 다쳤을 때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케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100만 명에게 15만 원을 줄 것이 아니고, 막 뿌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00억 정도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이거야말로 마중물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 가입하면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자산운용도 되고 이 속에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 2차, 3차 또 뿌린다? 이거는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후보자님께 드린 말씀 중에서 최소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시드머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기재부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기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의사진행……

○천하람 위원 아까 자료, 많은 분들 말씀하셔서 저도 좀 가능하면 중복된 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립니다.

우선 남성 장관후보자인 경우에 보통 병역 문제에 대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복무를 하시고 소집해제된 걸로 나오는데 이 사유가 사실 지금 전혀 자료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병적 기록표를 줘야 되고요.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다 제출합니다. 심지어는 임광현 국세청장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거는 물론이고 본인 아들 것까지 이미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시기에 빨리 본인의 병적 기록표를 당연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기재부에 확인해 보니까 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셨다라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제출돼야 되는 거니까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후보자 두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후보자 장녀 같은 경우에 외화 자산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해 가지고 이게 뭐 증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외환거래법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가족분들 거 말고 후보자 본인 외환거래 내역 좀 달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아직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가 약사 면허를 혹시 대여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이 이미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의 출퇴근 기록이나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도 유상범 의원실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봐서 실제 면허 대여 여부를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후보자에게 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저녁 식사 이후 8시까지 그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6시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임이자 앞엿것은 6시고 천하람 위원님은 지금 6시까지 달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8시까지는……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면허 대여한 의혹이 있다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자료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 배우자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회사, 멀리 떨어진 오송에 있는 회사에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국민들은 이 부분이 부적절한 거 아니냐, 면허 대여 의혹이 많이 간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통 이렇게 논란이 되면 배우자가 알아서 이런 회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는 말씀하시는 비상근 관리 약사 이것 계약을 종료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공직자는 공직자 스스로도 엄격해야 되지만 그 배우자도 항상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모습을 지켜 줘야지 공직자가 안전하게 공직을 마칠 수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속히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후보자, 여기 PPT를 한번 봐 주실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들은 곳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바로 화웨이 연구단지입니다. 24시간 모든 연구시설을 계속 운영하고요 모든 근로자들은 아무 때나 자유로운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여기 있는 카페는 호텔급 카페로서 누구나 쓸 수 있고 피트니스센터 있고 다 구비했습니다.

우리가 AI 투자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GPU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지금 AI 시대로 가는 것을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마치 챗GPT를 운영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

서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를 깔아 주는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업이 중심이 돼서 AI 시대로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인력, 규제완화 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자금 지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규제완화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분야, 반도체·AI 이런 경우에는 52시간 제한을 없애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당 52시간 제한을 함으로써 지금 삼성이나 LG 이런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은 결국은 시간되면 다 퇴근을 해요.

지금 이와 같이 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화웨이가 AI산업의 선두로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 유능한 인재가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분야라고 생각하고, 기재부장관이시고 부총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정 분야라도 우리가 소위 연구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개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때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규제개혁을 다 하도록 하고요. 또 제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이 저 화웨이의 캠퍼스처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 1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마지막 3분 안 하실 거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해야 되는데, 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오늘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와닿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재정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재정 투입에 의한 재정 승수효과가 가장 큰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분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분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국가 경제가 워낙 안 좋고 지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을 짜시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것이 기재부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공직자라는 것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번 목숨 걸고 이 분야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 진짜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재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성과가 있는 재정 운영 거기에다 포커

스를 맞춰서 어쨌거나 R&D부터 해서 우리가 산업 지원할 때도 또 아이টে으로 가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쪽에 유념해서 제가 업무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방금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R&D 경쟁력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것 공감합니다.

앞서 상법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작년에 국민의힘 정부에서 그 당시에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그 내부의 정부 과제로 상법 개정이 포함됐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하기로 말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지요.

자사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사주 처리하겠다고 그래 놓고 하기로 했다가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시장에서 냉소가 광범위하게 퍼진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일관된 기대, 신뢰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높이는 과정에서 또 어떤 우려하는 문제점도 제기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점은 줄이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 가지고 밸류업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밸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건 차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관련된 것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밸류업 정책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단어에서 나오는 제도적인 엑기스가 있으면 차용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연하지만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일관되게 간다, 이게 중도반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정부가 정말 참 일관되게 갈 거라는 신뢰가 생기면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정말 선진화되는 큰 계기를 만들어 낼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부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진짜 가계부채가 사실은 서민층들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지적들을 하지만 그 총량이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한때 GDP 대비해서 칠십몇 % 했다가 그 뒤로 10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GDP 계산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절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금 한 89, 90 이 정도 되는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89% 정도 됩니다.

○오기형 위원 실제 GDP 대비 한 80%가 넘어가면 내수가 위축된다 그런 지적이 일관

되게 요즘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현재 내수 위축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오기형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한 3~4년 동안에 고금리를 홍보할 때 그 고금리 시절에 50만 원 내던 사람이 100만 원 내던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면서 골목상권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호주머니가 털려 버리면서. 그 시기에 은행들은 매년 50조, 60조 예대마진을 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였다든지 은행이 다른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중의 한 반 정도는 은행이 부담할 리스크였고 그 은행과 거래했던 소비자들이 부담할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30조가 말라 버리는 바람에 은행들은 폐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그런 말들은 없었습니다. 금융 당국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질타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정무위 때도 그렇고 기재위에서 국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도덕적 해이는 눈감고 이번에 채무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번에 일정 기간 된, 5000만 원 이하 이 금액 갖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피눈물 속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한 7년 지나면 또 정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DSR 제도 제대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단계적으로 적용 예외되는 부분이 지금 50%가 넘는데 이것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줄이는 걸 로드맵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어쨌거나 하여튼 DSR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40%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고. 다만 위원님, 취약계층, 참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이분들이 진짜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에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은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가서 취약계층들이 진짜 좋은 일자리에 가서 그래서 얼마든지 DSR 규제를 낮춰도 상관없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문재인 정부 5년 초기에 국정과제 만들면서 가계부채 위험 회수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국정과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초기 3년 동안. 그리고 뒤늦게 조금 허겁지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제대로 안 했습니다, DSR 관리. 이재명 정

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이 자체의 고유한 정책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우리가 내수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저는 DSR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또 취약차주들의 경쟁력, 이분들에 대한 훈련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여튼 좀 자생력을 가지면서 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DSR 관리도 좀 타이트하게 해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계속 논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후보자님,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청년들하고 주민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아주 어렵게 청약이 됐는데—서울에 가서 사는데—대출이 막혀서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 포기한 것 누가 가져가나? 실제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6개월 살아야 된다 하지만—어떤 식으로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런 자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문제인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경험하셨지만 그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 내놔지만 실효가 없었으니까 스물몇 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온 국민들은, 결국은 ‘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런 게 굉장한 이슈처럼 정치 쪽에서는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나의 자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경제적인 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청문회를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유념을 하시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을 사고 싶은데 자기들은 못 사고 사다리가 걸어차였다 이런 허탈감을 갖고 있는 그런 특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에 빠지게 되고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막히면 세수는 줄게 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지역균형발전도 흔들리고, 결국은 이렇게 막 악순환으로 가면 사실은 정부라는 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우려하면서 부총리가 된다면 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외국 유학생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눈여겨보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2년부터 뭘 조사하고 있냐 하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획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편법증여가 얼마인지 그런 이상거래 쪽 적발하는 걸 하고 있는데, 3년간 1951건이 발견됐는데 그중에서 중국인이 1003건, 전체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왜 그러냐 보니까 부잣집의 중국 학생들이 입국을 해서 어쨌든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을 쉽게 사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총리 임용이 되면, 전 부처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거래가 있나 없나를 전 부처가 봐 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 중에서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은행에서는 LTV를 100%를 해 준다고요. 우리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쉽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막혀서 당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 할 수 있는, 국토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하면 사실 대구 지역은 최근에 거의 20개월 계속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올 1월에는 20% 정도 되던 게 지금은 44.8%로 악성 미분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허탈감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지역에 임대하고 있는 그 상가를 가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게, 지금 동성로에 가면 상가의 공실률이 2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 보면 핀셋으로도 해야 되고 전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급박한 마음으로 이걸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어쨌든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봐 주셔야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의 강남 지역 내지는 서울 지역 주택의 상황하고 또 외곽하고 또 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리게 되면 결국은 지역이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문제는 중간에 지역에서 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 정책, 다방면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셨으니까 면밀하게 꼭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진짜 지역 부동산 또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수요를 어쨌거나 좀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하려면 지역 산업이 살아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X 대전환을 통해서 어떤 업종이 되면 그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지역에 사람이 가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도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수요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 진짜 누구나 다, 젊은이들이 결혼했을 때 가장 문제가 나는 언제 집 사느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택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도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또 그보다는 젊은이들이 진짜 기술경쟁력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대전환을 통해서 AI 쪽의 완전히 전문가로 돼서 이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 또 단기간에 주택도 가질 수 있고 이래서 하여튼 총합적으로 서울·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 지역에 대한 부동산 정책,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 청년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촘촘하게 하여튼 정책을 마련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리고 특히 AI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 세운 게 광주는 AI 실증이고 대구는 AI R&D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하여튼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민생경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답변 이렇게 들어 보면 다소 추상적인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관 되시면 상세한 로드맵, 목표 그리고 의지를 좀 표명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부동산,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오르면 오른다 오른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서야 대책 수립하면 수도권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조금 올라가면 막 그냥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또 못 오르는 거예요. 이미 강남은 많이 올랐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값 안정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제 지역이 송도국제도시인데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데도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다른 지방에 많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법인세 보면 작년에 62조 5000억, 17조 9000억 원이 그 전년 대비 줄었어요, 법인세는. 근로소득세는 61조 원, 1조 9000억이 증가해 가지고, 국세 수입의 18.1%를 근로소득세가 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걸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벌도 개혁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세제도 좀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법인세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로세도 마찬가지로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경제 살리고 세제 이런 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앞장서야 되는데 아까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새로운 환경 조성 이런 거, 기재부가 저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기재부의 리스트럭처링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전에 최상목 부총리 계실 때도, 탄핵 그때도 전 세제실장, 전 예산실장, 알박기로 자산관리공사, 해외 다 파견시키고 내부에서 승진시키고…… 아니,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그렇게 예산실장, 세제실장 다 승진시키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다시 한번 다 보십시오. 기재부가 진짜 일을 잘할 수 있게, 겸손하게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신 재무장을 하고 다잡아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다 많이 풀어졌어요, 기강들이. 일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들도? 부총리 되시면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이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페이 해 가지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들도 많이 하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은 혁신 아이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외환 관리라든지 통화 관리 이런 쪽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서 연구도 하고 해서 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다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잘 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층에서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런데 손해도 나고 또 외국과의 경쟁력도 좀 있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인데 거기에 뒤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정부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하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트럼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 테이블을 좀 잡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도 빨리 청문회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장관 되시면 빨리 미국 가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빨리,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또 제가 임명이 돼야 어떤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일영 위원 미국에서는 언제까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8월 1일까지 시한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정일영 위원 많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협상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저는 지금 후보자 신분이라서 아주 직접적으로는 못 하는데……

○정일영 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지금 관련된 부처에서는 열심히 또 실용적이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미 협상이 끝난 나라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임명되시면 바로 미국에 가시든지 해 가지고 가장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2023년 2월에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이게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꽤 많았고 조직 규모도 되게 크더라고요, 임직원이 100명도 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제 밑에 경북 문화를 하는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경북콘텐츠진흥원, 한복진흥원 그리고 문화재연구원까지 있는, 4개 기관이 제 밑에 있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급여도 사실 월평균 700만 원 정도 되고 법인카드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쓰실 정도로 어쨌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규모

있는 기관의 대표셨는데 제가 여기의 경영성과계약서를 보니까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요. 도지사 승인 없이는 겸직하면 안 된다, 이게 비상근이기는 해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일이 많은 기관이니까 아마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후보자께서 위반하셨어요. 후보자께서 2023년 2월에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되셨는데 그다음에 바로 몇 달 안 돼서 2023년 4월에,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있을 때 여기 특별보좌역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월급을, 이름은 수당이었던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거기는 자문료……

○천하람 위원 그 자문료로 330만 원씩을 거의 매월 정기급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영리활동 겸직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경북문화재단은 그때 그게 근로소득 개념이고 여기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런 개념이라 가지고……

○천하람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소득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세무 신고의 개념인데, 겸직금지 의무를 두고 겸직할 거면 도지사 승인을 받으라고 했던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월급에 가까운 수당으로 나오는 것을 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직허가를 받으셨어야지요. 그런 것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도지사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좀 더 주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 활동하셨던 것도 보니까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럼 후보자님께서 체육회에서 도대체 뭘 하셨냐?’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원래 관리대장이라는 내역을 정리해야 되는데 후보자님이 체육회장하고 그냥 직보를 했기 때문에 내규대로 관리대장을 작성 못 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그 대한체육회가 작년 10월 정도에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국무조정실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보자님의 활동 내역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국무조정실의 감사 대응.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국무조정실장 출신이시니까 혹시 대한체육회의 사실상 대관 업무 같은 걸 하셨던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기흥 회장이 굉장히 큰 여러 배임·횡령 혐의나 이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구조를 하는 대관 업무 같은 것 담당하셨던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국무조정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기흥 회장한테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 조사는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자문은 제가 해 줬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서는 참 믿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다른 내역은 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국무조정실 관련 대응 업무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특히 대한체육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오해할 만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의 이런 여러 가지 처신들에 있어서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외에도 지금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국무조정실 퇴임 이후에 한 6개 정도 직위를 하셨다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안 쓰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등기된 법인단체만 따로 찾아봐도 11개 법인에 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가 다 등재돼 있고요. 심지어 본인이 창업한 회사도 있으세요. 경영컨설팅 회사 아나루라는 회사 창업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특히나 경제 관료 출신인 분이 경제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좀 제대로 국회에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힌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 국가에 대한 봉사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 한 20개 정도, 저한테 요청이 오면 20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서 일정한 비용을 받은 데는 한 두세 군데고요 나머지 한 열몇 군데는 대부분은 보수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욱 공직자로서 신중하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무료 봉사 수준이 아니고 대기업 사외이사 하신 것 이런 것도 빠져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여쭙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후보자께서 대선 기간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책을 내셨습니다,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 그중에 포용적 혁신 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던데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재정운용 대혁신 10대 원칙이라고 해서 제시하셨는데 이것 재정운용의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취입하시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다 같이 공유하시고 그런 원칙 속에서 재정운용이 되고 또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그 글 중에 또 하나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콘셉트였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은 가구 단위로,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같으면 그 당시에 생활하는 게 300만 원이다 하면 이 가구에 내가 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예를 들자면 할머니, 애들 들 또는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못 하는 가구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300만 원을 보전해 줘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가구는 4인 가구가 있는데 아버지, 엄마, 애들 둘이면 애들 둘은 학교 다니니까 돈을 못 버는데 부모님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를 취업을 시켰다 그러면 이 가구는 500만 원이 되니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국가의 복지비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가 못 하면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하고 복지를 좀 연계하는 제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하여튼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논의를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국민이 최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필요한 소득을 정하고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만큼 지원하자, 부족한 만큼. 그런데 그 소득이 넘어가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렇지요.

○진성준 위원 그것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의장님께서 좀 이렇게……

○진성준 위원 재임 기간 동안에 연구 발전시켜서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한국형 기본 주택. 이 한국형 기본 주택도 짚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한국형 기본 주택은 이겁니다. 한국인들은 주택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는 저소득 가구에는 아주 큰 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같으면 한 15평, 20평 내외로 스몰로 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거기서 돈을 모아 가지고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이런 걸 하려면 주택을 30평, 40평 이렇게 너무 좋은 걸 하다 보면 거기서 안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택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작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고 거기서 자립을 해서 나가면 또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의 개념을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려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민간에 맡겨서는 잘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진성준 위원 공공이 나서야 될 텐데, 이를테면 LH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해야 될 텐데 LH는 택지를 조성해서 이 택지를 민간에 다 팔아넘겨요. 자기들은 정작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차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조금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 공공주택의 공급이 소규모일 수밖에 없어요. 대규모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이 9%밖에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한 20%는 돼야 시장가격 조절 기능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주거취약계층에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자면 LH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쨌거나 공공 부문에서 주택이 없는 취약 가구,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비를 피하고 살 만한 데를 숫자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늘려 나가서 재정도 감안하고 또 LH의 능력도 감안해서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고 그래서 거기 살다가 또다시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하는 이런 식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서……

○진성준 위원 글썄요 너무 작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렇지요. 또 너무 커도 안……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국가가, 정부가. 그 점을 유념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의논을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제가 주질의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달 관련된 것, 아주 대규모 비리 업체에 관련된 것 좀 더 여쭙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그때 이 업체를 방문했던 것들에 대한 전체 흐름을 후보자님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10월 달에 그 바쁜 시기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보면 기재부…… 기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기재부에 있는 많은 후배들 정말 불철주야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에 대해서도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업체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후보자님의 방문이 이런 대규모 조달 비리의 기폭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고위공직자로서 또 과거에도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처신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다른 비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 인식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갈 때는 그런 것도 몰랐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공직자로서 더 처신에 조심하고 앞으로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진짜 이게 사회적인 파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과 앞으로 기재부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오늘 국민들 앞에 약속하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좋습니다.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법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일부 대기업들의 사익편취 또 편법, 꼼수 이런 것들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이 상법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주주의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하기 정말 힘들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위축되다 보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이런 것들 저는 되게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정말 주주를 위한 개혁이라면 앞으로 기업이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일부 기업의 일탈들을 저는 도덕적 해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일탈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구조적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상속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지금 보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이거 워낙 많이 애기했던 거라—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 한국입니다. 1.59%나 돼요. 그리고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나 되는데 프랑스나 벨기에하고 가장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보면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배우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도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배우자 간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들 혹시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익히 들었습니다.

○**최은석 위원**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20억 있는 부부가 이혼해서 재산분할하면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그렇지만 부부 일방이 타방한테 10억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이게 보시면 결혼과 양성평등의 가치에도 지금 맞지 않은 게 부부간의 상속·증여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많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자본 해외 이전도 되게 많이 부추깁니다.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한 6명 있었던 싱가포르 이주 한국인이 지금 298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한 1000억대 이상의 현금을 가진 아주 초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실은 이런 분들이 한국 내에서 본인이 가진 자산을 투자해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런 자금들이 쓰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돈을 들고 전부 다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자님,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겨서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나머지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후보자님, 집중해 주세요.

오전에 이어서 최소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사는 아동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추천사를 하셨어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만드는 일, 그중에 기본 주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혁, 공급 방안, 금융개혁 과제, 전월세 시장개혁 과제, 이 부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을 고민할 때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바람직한 결과부터 생각하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가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다’, 이재명 정부 5년 임기 후에 달성할 결과를 먼저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예산과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하에서 최소주거기준 문제 해결해 놓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빛을 비추어 어둠을 정확히 볼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둠이 있는데요. 어둠은 어둠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빛을 비추는 순간 정확히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그러지 않았더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니깐 이걸 패러디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즉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나라가 돼 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전장연의 장애인분들이 오늘도 이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하시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언론이든지 정부든지 국회든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60차레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멸감을 아침부터 동료 시민들로부터 들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들으려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에 기재부에서 갖고 온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이것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작년에 황당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 하면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한 20조 가까이 된다는 게 우리 국회의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평소에 기재부 공무원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길래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왼쪽에 한번 보세요.

장애인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 보십시오. 차량 관련해서 270억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산시켰어요.

이동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 중의 기본적인 자유 아닌가요?

부총리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자유 중의 기본이 거주이전의 자유고 이동의 자유 아니에요?

장애인분들 270억 이것을 무산시키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오른쪽 보세요, 이것 지금 할 때냐는 거지요.

그래서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왼쪽의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아직 못 하느냐, 언제까지 시기상조, 유예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안 하는지 설명을 좀 들어 봐야겠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느냐, 대한민국에 그렇게 돈이 없느냐, 정부라면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시위 현장에 누구인가는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같은 얘기를 계속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일하는 것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치는 책임인데요. 책임은 영어 표현이 리스폰서빌리티(responsibility)입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리스폰스(response), 응답하다에 나온 말이잖아요. 응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후보자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듣고 답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 진짜 가슴에 와닿습니다.

최근에 다리에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휠체어를 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휠체어를 타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제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시각에서 뭐를 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권영세 위원님까지 하고 저녁 식사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순서가 문제가 있어요,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아니요, 부지런히 왔더니 또 쉰다고 그래서.

○권영세 위원 후보자님,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총 30.5조의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적자성 채무가 처음으로 70%를 돌파하고 국가채무 총액도 1300조를 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평가하는데 대체로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것은……

○권영세 위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국가채무는 총량도 중요하지만 증가 속도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최근에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보면 얼마 전에 박수영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에 33.9%에서 22년도에 47.4%로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12% 이상 급증했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1.8%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는 49.1%로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다 연말에 50%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조금 전에 박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후보자께서 무조건 내고 확장재정을 하는 것은 안 하고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AI 같은 데는 과감하게 돈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확장재정을 안 하겠다 이런 얘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돈 쓰겠다는 것 보면 소비쿠폰도 그렇고 또 양곡법 하게 되면 우리가 양곡 의무매입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이런 것

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권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당장은 좀 필요하다,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후보자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어쨌거나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 구조로 빨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올해 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 할 생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지금은 1·2차 추경 좀 하고 또 추가적인 소비진작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최대한 빨리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아까 박수영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계속해서 소비진작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5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또 피치사는 지난 4월에 중국의 신용등급도 강등했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것 다 이유들이 뭐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재정적자 문제……

○권영세 위원 재정적자, 공공부채 이런 부분들이었지요.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중국은 준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14억의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전혀 다른데 이런 나라도 재정이라든지 국가채무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말이에요.

국제신용평가사, 아까 얘기한 피치의 아태본부장이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 변동도 고려사항이고 지난 2월에는 부채가 늘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런 우려를 표현한 것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큰일 납니다.

○권영세 위원 큰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지요? 정부나 민간이 자금 조달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금리가 올라가고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권영세 위원 예, 올라가고 그러면 또 더 부채가 증가되게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구잡이로 확장재정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야말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채를 하게 되면 다 누가 이걸 갚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이 다 갚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아까 대통령실하고 관계 말

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인 생각에서 확장재정을 무조건 쓰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제를 해 줘야 될 데가 바로 경제 총괄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정부 됐다고 해서 바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적극적이 아니고,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검토라고 쓰면 이거는 안한다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공무직 처우 개선을 ‘재정 여건이나 공무원 처우 개선, 타 부처 공무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기재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타 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왔다는 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는 각 기관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등을 거쳐서 인건비 수당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것도 조금,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왜 안 해 줘줬어요. 이것을 다 기재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후보자님께, 사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물 건너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살펴 가지고요.

○위원장 임이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시해서 8시까지, 저녁 끝나고 나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저 이것 해결 안 되면 오늘 끝 안 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공공투자의 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만큼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달에 간다, 10년 안에 간다 이런 웅대한 미션을 발표했습니다. 7년 지난 다음에 69년에 달에 보냅니다, 실제.

그 시절의 과학기술 한계, 컴퓨터도 소형화시켜야 되고 엔진도 개발해야 되고 부품 하나하나 우주로 보내기 위한 미션들이 실행됩니다. 그러면서 나사가 설립되지요, 그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다가오는 미션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기후위기의 문제, 인구·저출생·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는 범부처적인 일이지는 하지만 누구인가 하나 이 미션을 제대로 쥐고 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경제성장을 한 축으로 얘기했고 그게 A, B, C, D, E로 말씀을 축약해서 하셨고요. 그 안에 혁신이 동반되는 과정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중요한데 아까 후보자께서도 얘기했듯이 총국세가 22년도에 395.9조 그다음에 23년도에 344.1조 그다음에 24년도에 336.5조 그다음에 우리가 10조 감액 추정해서 372조 올해 잡았는데 22년도도 회복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과거에 했던 것들에 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감세정책에 따라서 투자나 일자리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소비도 늘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탈 거다’ 이게 80년대 경제학계 논리 중의 하나였고 그게 금융위기까지 지속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IMF조차도 그걸 다 폐기를 했어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해서.

권영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왜 국제 투자금융기관들이 미국 재정적자를 그렇게 낙제점을 쳤을까? 그 감세정책 여파, 20년 넘는 감세정책 여파가 효과가 없었던 거지요.

학자 마추카토 혹시 아세요?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현대 미국의 모든 경제의 이득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투자의 결과다. 그리고 그 미션들을 정부가 훌륭하게 모험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이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수소비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수요 사이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저희 경제는 사실은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일단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잖아요.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출과 내수의 상관관계가 예전에는 수출이 잘되면 내수 잘됐잖아요, 일자리 늘고 실질임금 오르고. 그런데 수출과 내수의 이 플러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내수 쪽의, 사실 OECD 평균 보면 GDP의 60.6%가 소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6.6%, 내수 소비가 취약한 나라이기도 한데 21개 국가가 저희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도 내수 비중이 그렇게 큼니다. 이제 균형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되지 않

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에 특히나 27.4조 원이 빠졌어요, GDP가. 12월 달에 2.2조, 경제성장률이 0.8%로 추락하면서 25조나 빠졌어요.

기재부가 이것……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기재부 과거 3년의 정책들에 대한 정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취약해진 재정여건이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다시 경제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지금은 재정이 역할을 할 때다. 그리고 이 선순환을 기재부가 꼭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 지금 후보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디 한 군데 믿을 곳이 없습니다. 소비도 믿지를 못하고 투자도 믿지를 못하고 재정도 지금 아주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런다고 수출이 잘 되느냐? 그것도 지금 관세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과거처럼 타깃이 너무 커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못 건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걸 아이템 베이스로 가야 된다. 구체적인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이것 하면 대한민국 먹고살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AI 자동차를 만든다. 자동차산업은 굉장히 지금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AI를 접목해서, 자동차에 AI가 적용돼서 이 자동차가 싱킹(thinking)을 하면서 간다,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다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너희 손해야, 너희 못 만들잖아. 그런 제품을 몇 개 만드느냐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나중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겠지만—정확한 타깃을 정하자, 타깃 한 개라도. 열 개를 제대로 못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하나를 제대로 하면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하면서 열 개를 한다?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진짜 가라앉게 되고요.

제가 길게 봐서 진짜 거의 한 5년 안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못 하면 그때는 아무도 대한민국을 건져 올릴 수가 없다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모빌리티, 인력, 돈, 기술자, 하물며 외국에 기술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불러와야 됩니다. 그것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아껴 가지고 AI 대전에 늦어진다. 그 이후에는 돈을 아무리 넣어도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찾아오기 어렵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5년, 특히 AI를 현실에 적용하는 퍼지컬 AI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능하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한국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하지 않고 과거처럼 이걸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

시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김태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한 각오를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요. 그런데 이게 각오만 가지고 되지 않을 그럴 상황 아닙니까? 파격적인 발상, 비상한 발상, 결단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인 데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까에 이어서 두세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혁신, 대전환의 필요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사람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인재 아니겠습니까, 기술도 자본도 다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재 부족, 인력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 공계 인력이 감소하고 있고 우수인재 유출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재 순수출국이 돼 버렸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일단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 유출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해외 인재를 유치할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첨단전략산업과 매칭해서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 유출 막을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대우 잘해 줘야 되고 연구환경 이런 것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국관리법도 발의를 했는데,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지금 중국은 대우뿐만이 아니라 아예 정주비까지 지원할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비자 문제, 비자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이거는 법무부의 보수성을 넘어서지 않으면 못 할 거예요. 이것은 경제 부처가 딱 틀어쥐고 법무부를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주여건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이 인재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6·27 대책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발이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처음 본 대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대출에 캡을 씌운 것, 6억의 캡을 씌운 것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신규 대출은 캡을 씌워 놔는데, 예컨대 다주택자가 대출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대출 연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대책은 없거든요, 이번에. 그걸 막아 놔야 재고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양도세 면제 지금 3년으로 늘려 놔어요. 이것은 좋은 정책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WGBI 이것도 지금 된다 했다가 또 미루어져 버렸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내년부터는 아마……

○김태년 위원 이것 내년 가 봐야 알잖아요. 그때 삼페인 터뜨렸다가 지금 안 됐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잘 가동해서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정책적인 보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외화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증권사, 로컬 증권사의 주관 비중이 대단히 낮아요.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싸울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증권사들이 자꾸 떨어지고 해외 IB들만 이 시장에서 놓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 토종 금융사들의 실력을 키워서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십시오, 어차피 3분 안 하실 거니까.

○김태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놓고 보면 국가가 외화채를 발행할 때 자국 증권사를 주관사로 하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높아요. 다 20%, 30% 이런 수준인데 우리는 겨우 4%, 6%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법으로 할 일이 아니어서 어떤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기회를 줘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국부펀드 이야기했을 때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것은 톱다운 방식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텐데 우리가 TSMC 사례를 보면 보텀업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데서 신청을 해서 받아 낸 거거든요, 선정을 한 거거든요.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안정적인 수익창출형에도 하나를 넣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의 포트폴리오가 하나 필요할 것이고 현재는 조금 위기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꼭 육성해야 되는 산업들, 즉 위기 극복 목적의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조합이 잘되고—포트폴리오로는—그다음에 방식은 보텀업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 진짜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부터 좀 설명드리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 톱다운, 보텀업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누구나 제안을 해 가지고 ‘진짜 이 사업 가능성이 있고 좀 될 만하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톱다운이든 보텀업이든 호리젠탈(horizontal)이든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 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이것 해 가지고 미래 비전이 된다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TSMC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외화채 하면서 사실은 지금 국내 증권사나 IB뱅크나 이런 데가 기회가 없어 가지고 실력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 하더라도 우리가 좀 끼워서 번들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를 좀 봐 가지고 우리 IB들도 글로벌화하는 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주신 것에서 진짜 인력 양성 그다음 이공계 인력, 특히 국내에서 AI 인력이라든지 최첨단 쪽의 인력, 반도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유출, 저도 민간에 있다 보니까, 고등과학원의 아주 실력 있는 분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진짜 안 된다’ 하는데도 현실의 어떤 한계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인력이라면 100억을 주고 또는 인재를 우리한테 모셔 와서 1000억씩, 1조씩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시장 안정 등 관련해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MSCI라든지 WGBI 같은 경우는, 지금 MSCI는 저희들이 TF 만들어서 진짜 하나하나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아이템별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GBI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이 이제는 디스카운트 되어서는 안 된다, 밸류업 더 시켜 보자 하

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그동안의 질의 답변 과정을 이렇게 죽 지켜 보니까 느끼는 게 굉장히 설명도 길게 하시고 답변도 길게 하시면서 자세하게 의지를 강하게 밝히시고,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얘기들이 한편으로는 뻔한 얘기들만 장황하게 늘어놔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필요한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얘기들만 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색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기재부의 기제가 바뀐 정도의 다른 얘기다 뭐 이런 정도밖에 제가 느껴지는 게 없다는 말씀 잘 새겨들으셔서 앞으로 혹시 경제수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아까 했던 질의를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또 질의를 이어 가는 이유는 국정에 대한 신뢰는 그 국정을 담당하는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대출 끼고 9억 원에 산 땅 그리고 대출 끼고 지은 주상복합건물, 토지·건물 합쳐 가지고 22억 원에 팔았지요? 그리고 8억 원대에 산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3억 3000 냥지만 현재 매물 가격이 55억 정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 두 주상복합 건물과 개포주공아파트 역시 매각될 때까지나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했던 것, 다 사실 맞습니까?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세입자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셨거든요. 남의 돈이나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하면,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진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재테크라는 측면에서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상환 능력 있는 청년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출제한 규제를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 당국이?

이런 점에서는 형평성과 맞지 않고 이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는지 이걸 여쭙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 국민들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말씀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특히 청년들한테, 그걸 여쭙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런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상범 위원이 배우자 약사 면허 문제 질의한 게 있었는데 그 회사하고는 정리를 다 하셨다고 그랬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박대출 위원 아, 정리를 한 건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급여가 월 120만 원까지 지금 계속 매달 받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약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120만 원 받으면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사실은 위원님, 이 회사가요 매출액이 2023년도에 10억 되는 회사고요, 제가 듣기로는 적자가 한 4억 정도 난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람되지만 저희 집사람은, 제가 왜 이렇게 했냐 따져 보니까 자기도 너무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박대출 위원 어려워서 그냥 도와주고 월급도 120만 원만 받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도와준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국민 눈높이에서 그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이자 예.

○박대출 위원 작년 4월에 배우자가 골프회원권 취득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재산등록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등록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것 바로 팔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언제 팔았습니까, 지분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사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박대출 위원 얼마 안 됐다는 건 시기를 언제를 얘기를 합니까, 처분한 시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거의 간격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박대출 위원 2004년 8월에 취득하고 몇 개월 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2004년이 아니고요, 2024년일 겁니다.

○박대출 위원 맞습니다. 2024년, 작년 8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24년도. 그러고 나서, 내가 알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제가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그거는……

○박대출 위원 제가 이 시기를 여쭙보는 거는 이게 공직자로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공직 제안이 들어와서 본인이 정보공개 동의를 하던 그런 시점, 요청받은 시점인지 아니면 그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전으로 저는……

○박대출 위원 지금 후보자의 말씀대로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일찍 처분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거는 제가 알고……

○박대출 위원 예, 그 시기만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 제가 성장률 관련한 질의와 대책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한번 분야를 좁혀서, 건설투자에 관련한 부분으로 한번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이 안 떴서……

○위원장 임이자 시간 멈춰 주세요.

○김영진 위원 됐네요. 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보면, 지출 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내수,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다 마이너스인데 그중에서도 건설투자가 가장 마이너스가 컸습니다. 그런 요인이 전체적으로 1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건설업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5년 예산안에 전년도보다도 줄어든 26.4조 원에서 25.4조 원으로 건설업 관련한 예산을 줄여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투자가 다 줄었던 예지요.

그런데 건설업 투자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GTX-A·B·C, 지금 D·E·F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2023년 8월에, GTX-C노선을 2023년 8월에 원희룡 장관이 현대건설과 실시협약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아주 빠르게 1월에 의정부에서 GTX-C 노선 착공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지금 2025년 7월이니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총사업비 변경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사업이 벌써, 2024년 1월 총선을 앞두고—의정부부터 수원까지 이르는 노선인데—의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도 초청하지 않고 착공식을 했는데 결론은 1년 6개월간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었

어요.

23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에 착공식을 거쳤는데 그사이에 소비자물가지수 변화가 21년에 2.5에서 5.1, 건설투자비 변동률이 8.6에서 7.8까지 엄청나게 물가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뛴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에 따른 기재부의 물가특례를 적용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착공식을 빨리함으로 인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대략 현재까지 6800억 정도가 부족한 사업이라서 실제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전형적인 예가 가덕도신공항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협약 체결이 안 됐고 착공식이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협약을 체결했고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실시협약 이후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 실시설계에 관해서 변경을 통해서 국비가 더 투입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가 요금도 올리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추가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 총사업비 조정에 민간투자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실시협약 체결된 게 2023년 8월이고요 착공식이 한 5개월 이후에 되고 나서 총사업비 변경이 오다 보니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실시협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총사업비를 한다는 게 실시협약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변경하는 사유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관계 부처하고 좀 협의도 해 보고……

○**김영진 위원** 저는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윤 정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교통위에서 GTX-A·B·C·D·E·F까지 나왔는데요 하나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물가특례 발표를 하고 나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약을 진행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20% 이상이 되면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적격성심사를 하는데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고 그러면 또 물가가 오르고 더 지체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사실 우리 경제의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관련한 사항들이 재정투자에서도 이렇게 지체되고 있으면 민간사업 부문은 더 어렵겠지요. 그러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저는 대안을 같이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 우리 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이게 실시협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총사업비 변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또 총사업비 관리규정상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한번 살펴보고요 관계 부처하고도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판단과 결정을, 선택과 집중 그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사안과 500억 이상 사업에 관한 총사업비 조정 관련해서 20% 이상 변경사업이 6개월, 1년으로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면서 또 다른 악순환을 낳는 사업들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세수추계에 대한 AI 시스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추계 얘기하면 저는 22년도 기억이 떠올라요.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의 완전 흑역사일 겁니다. 흑역사이자 아마 대통령선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22년 1월 24일 날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35조 혹은 40조, 심지어 당시 야당은 거의 50조 증액을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재부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버티고 버티서 결국에는 국회가 사실은 기재부에 굴복했지요. 그런데 그 뒤로 석 달 뒤에 갑자기 53조 원이 툭 하고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60조 정도 되는 추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전에는, 제가 자료를 최근에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세수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너무 적게 해 가지고 21년도에는 61조가 더 걷히고 22년도에는 53조가 더 걷혔어요. 결국 이것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완전히 또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기재부 내부에서 조사를, 저는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도대체 우리 살림 솜씨가 얼마나 녹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수추계시스템을 제대로 짜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별도로 짜더라도 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 살림 솜씨가 이렇게 시원찮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따져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기재부 내부에서 이걸 잘 따지지 못하면 저는 국회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기재부 자체에서 한번 잘……

○**조승래 위원** 한번 잘 따져 보셔서, 8월 16일 이후부터는 결산을 할 테니 결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자께서 2차관 시절에 국유재산 선도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그게 한 11개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미 사업 승인이 다 돼서 착공되거나 준공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교도소 사업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께서는…… 이게 법무부, 대전시, LH 이렇게 삼자가 협약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공기업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타 충족 요건이 안 됨으로 해서 사업이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사업구조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후보자께서 차관 시절에 했던 사업인 만큼 장관으로 돌아오셔서 이 선도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제가 장관으로 만약에 임명된다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경기가 위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 당시 국유재산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경기 활성화의 측면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국유재산 선도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국유재산을 활용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대전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은 잘 갔더라고요, 성과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개발이 효율성도 높이고 기존 토지도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최상목 장관 시절에 산업부장관과 미국에 가서 관세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한이 8월 달로 늦춰졌는데, 그러면 7월 중에 혹시 기재부장관이 되시면 미국으로 가서 협상을 추진해야 됩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은 후보자 신분이라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은 못 하는데 일단 8월 1일까지기 때문에 시간은 좀 촉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되면 즉시 관계 부처,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 관세협상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길인지를 찾아서…… 하여튼 어쨌거나 빨리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물론 장관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유능한 공직자들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러나 수장이 미국 혹은 현지에 가서 협상을 하는 것과 차관이 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같은 것들 좀 서둘러서 그 협상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금 더 묻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에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됐다가 3년 만에, 2017년에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폐지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작동이 좀 어려운……

○차규근 위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그 혜택은 또 대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아까 후보자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의무 조항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안들은 직접적으로 감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직접적으로 감세가 초래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AI 대전환 등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을 꾸려 나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긍정적인 검토는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오히려 과세 회피 수단이 되어 버린 감액배당에 과세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재부도 서면답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취입하게 되면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후보자님, 기후대응기금 관리 주체가 기재부장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 산업 등의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업·일자리 전환 예산이 25억 감소한 반면 또 기술 예산, R&D 예산은 2086억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좀 보면 해당 부처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지 않나, 굳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는 게 적절한가라는 그런 사업들이 보입니다. 예컨대 국토부의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인가요, 고품질 로열젤리 대량생산 기술개발 또 염소 신산

업화 경쟁력 강화기술 또 농림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당 부처의 일반회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본 위원은 산불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림청 사업 중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보면 숲 가꾸기 DB 구축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산림청에 물어보니까 산림청의 산림자원과 시스템 관리가 잘 연계가 안 돼 있고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 DB 구축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무자는 아직도 구축 과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5년 차인 지금도 과도기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요 기후대응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장관이 되시면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최근에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본 위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채무조정 신청자 대부분이 실직·폐업·소득감소·생계비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청자 65%가량이 소득 200만 원 이하로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3040이 전체 채무조정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신청하는, 고의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게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지금 신용불량에 빠진다는지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경제의 순환을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을 잘 가려서 거기에서 오버라이드(override) 하는 거라든지 또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기재부 복권기금 사업 중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보면 인천 센터 구축 예산 편성됐는데 또 의정부와 창원 센터도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30초만……

○위원장 임이자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인천 센터는 내달에 개소하는데 의정부와 창원 센터는 올 연말 개소를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사업이 확정된 만큼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또 개소 이후에는 센터 운영하려면 법무부에도 운영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려면 운영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기재부하고 좀 협의해서 금융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살펴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오늘 말씀하신 모두발언을 제가 여러 번 읽어 봤는데요, 통상의 재정부처 수장의 발언들 중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을 할 때는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은 진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분명히 현금 살포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게 만성적으로 간다든지 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또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특별하게 원 포인트 또는 투 포인트, 쓰리 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딱 한정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따지면 약 40조 원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 규모만 해도 벌써 9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채무도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이 2.93% 수준이고요 2위가 프랑스인데 약 1.89%입니다. 결국 1%p가량 우리가 더 높다는 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결국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세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재정건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자님, 재정 중속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피스컬 도미넌스(fiscal dominance)라는 단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오히려 통화정책을 압박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피스컬 도미넌스가 주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국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런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특히나 우리나라 재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명확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제가 깊이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 또한 저희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도 지키고 또 필요한 곳에 서는 과감하게 쓰는 그런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결국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또 자동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할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종합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제가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최대한 북돋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제가 일본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에 2001년도에 대장성을 재무성으로 개편한 게 유일한 사례였고요. 미국도 1789년 이후로 약 240년간, 9·11 미국 테러 이후에는 국토안보부 신설을 제외하면 이런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쪼개기라든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진작도 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병행한다면 기민한 대응도 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박성훈 위원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예산권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고 기재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도, 의혹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정권 맞춤형 썸짓돈 계정을 만들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정부의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더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기재부도 잘 지원해서 성과가 나는 그런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 조직개편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기재부 직원들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잘 조직을 운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후보자님, 지역균형발전이 없이는 지속성장이 어렵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년 이상 정부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방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실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후보자님이 지속성장 그리고 성장률 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균형발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라고 규정한다면 뭔가 혁신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다면 혁신적인 특단의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래서 지역균형을 발전시키려면 진짜 초혁신 경제를 통해서 초혁신 산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오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을 자꾸 옮겨라, 옮겨라 하니까 인프라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산업에 집중해서 아예 거기다가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이런 전략은 또 어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핵심적인 게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정학에서 지방재정을 분석해 봤을 때 자주재원이 크면 클수록 지역 개발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자주재원을 어떻게 더 키워갈 거냐, 규모를 더 넓혀 줄 거냐 이것 되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5 대 25라는 건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6 대 4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 대 3까지도 못 가 있거든요. 이 구조를, 지금 75 대 25 이 구조를 최소한 7 대 3으로—구윤철 부총리가 되시면—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혁신적인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취임하게 되면 고

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또 몇 가지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지방 가서 한 1년 정도 있어 보니까요 자주재원을 주면서 또 거기에 합당한 인력도 같이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국가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항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경제부총리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결국은 재원이 내려가는 만큼 일도 동시에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구상해 보시길 바라구요.

두 번째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대전환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은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데 삼성이 RE100 선언을 해 놓고도 RE100을 못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또 얼마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도 지금 의문이고.

여하튼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의 싸움인데 그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의지는 분명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럼요. 가야 되는 길이고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재생에너지라는 게 큰 문제가 간헐성, 변동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경제가 수소경제잖아요. 그리고 이 수소경제를 각국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도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예.

○**정태호 위원**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수소경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린수소를 만드는 데 수소 수준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IRA법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소경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법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전략기술로 지금 채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에서 수소경제가 거의 포기되다시피 했어요. 저는 구윤철 부총리께서 수소경제에 특히 주목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를 가장 빨리 간다면 이 또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살펴보고요, 수소환원제철법이라든지 수소를 활용한 한국 경제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나아갈지 하는 부분은 또 관계 부처, 전문가들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서면답변을 보니까 기본소득, 한국형 기본소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을 보니까 흔히 얘기하던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닌 것 같고 상대적 빈곤층에 대해서 소득을 보태 주는 형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안심이 되는데, 기본소득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 즉 이재용 회장한테까지 돈을 나눠 주는 방식 이거 안 되고 기본소득 이외에 또 여러 가지로 번져 나가는 이런 기본정책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실패한 사례가 베네수엘라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베네수엘라의 기본정책인데 베네수엘라는 기본정책을—아마 스페니시 같은데—미시옹(Mision)이라고 하는데 이 미시옹에는 차베스와 마두로가 무려 스물네 가지 미시옹을 했습니다. 스물네 가지나 미시옹을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기본소득,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등 지금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물네 가지의 미시옹을 했다가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거덜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돈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몇 %까지 일어났는지 혹시 후보자님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 기억으로는 베네수엘라가 물가 때문에 돈을 거의 가방으로 들고 다녀야지만 살 정도라는 생각이 납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제가 교과서로만 배운 줄 알았는데 봐 보니까, 그 결과 13만 60%라고 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물가상승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고요, 6만% 이런 식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지지·지원 이걸 꼭 필요하지만 무작정 돈을 풀고 무작정 많은 분야에, 24개 분야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거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와 버금가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제가 사진을 2개 올려 놔는데 1950년 우리 6·25 전쟁 당시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7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면서 쓰레기차를 뒤져 가지고 먹을 걸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남미의 파리로 불리던 카라카스가 이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어제 충청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난리가 났고 지금 대구에 한창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엉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극한 호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극한 호우를 서울에 안 일어나니까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호우가 있기 때문에 극한 투자를 해야 된다, SOC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연대별 극한 호우 기록인데 이게 점점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건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다음 보시면 시설물 안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2년에는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8%였는데 2028년이 되면 40%가 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데군데에서 사고, 어제 웅벽 무너지고 축대 무너진 거 보셨겠지만 이런 사고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투자는 SO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어디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현금 나눠 주는 쪽은 많이 늘려서 13조 1000억이던 게 거의 15조까지 늘어났는데 감액은 어디를 했느냐, SOC를 감액을 해요, SOC를.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C의 안전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제일 만만하고 덩치가 큰 게 SOC니까 이걸 다 깎아 내고 지역화폐라든지 생활지원금 같은 걸로 하면서 현금 지원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리는데 현금 주는 이전지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이거는 3년 평균 재정승수가 0.3에 불과하고 SOC에 투자하면 0.8 그다음에 정부소비에 하면 0.9가 되고 특히 정부투자는 4년을 넘기면 1을 넘기는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즉 투자한 것만큼 벌써 뽑아 낸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돈, 한정된 재원이라면 재정승수가 높은 곳에 써야 되고 그중에 정부투자, 그중에 안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진짜 극한 기후에 따른 폭우 또는 가뭄 또는 태풍 이런 게 아주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동감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SOC 1차·2차 관련해서는 한 2조 5000억, 2조 원 해서 5조 원 정도를 늘렸고요. 다만 금년도 집행 가능성을 봐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줄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집행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투자승수 관련해서는 금년에 한 이전지출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걸 SOC 투자나 정부지출로 해서 돌려 가다 보면 타임 락(time lag)이 너무 길어 가지고 이분들이 그사이에 기다릴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이전지출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진짜 이런 이전지출은 소요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도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정말 망국병이에요, 망국병. 그래서 지금 서울·수도권의 특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반면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엄청난 박탈을 사실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통합이 엄청나게 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속성 이런 부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제가 이재명 정부를 보면 대통령도 정치적인 기반이 수도권이고 또 여기의 여당 위원님들도 전부 보면 다 수도권 출신이에요, 물론 일부 지방도 있지만. 반면에 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지방 출신이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수도권 출신이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들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앞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지방에 초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지는 좋아요. 방향은 좋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를 들자면 부울경 같으면 조선 쪽에다가 AI를 접목하는 퍼지컬 AI를 한다든지 또……

○윤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최송합니다라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정부가 계획적으로, 인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든지 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뭔가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고, 그렇지 않습니까? AI 시대는 탈집중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돼요,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중국 광둥성의 선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드론의 70%를 거기에서 다 생산하는데 그게 홍콩과기대 학생 하나가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가 너무 심해요. 자율주행 차량만 하더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거의 유럽에서 법을 받다 보니까—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율주행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실증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를 완화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제입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걸 지방세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법인세, 상속세 그리고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자치단체 구역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유턴을 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갈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규제 완화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것이 FDI,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서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까 부울경을 예로 드셨는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물류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앙집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북극 항로라든지 이런 게 개방이 되면 부산이 거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그런 언급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차등화할 수 있는, 각종 세제를, 그렇게 해서 정부가 모든 재정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예.

○윤영석 위원 정부가 모든 재정을 투입해서 이거를 하겠다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가 없이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풀어 줌으로써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기재부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수도권 일극 해소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수도권 위원님들이, 정태호 간사님도 그렇고 지역 균형에 저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분들이 수도권 위원님이라고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방이 살아야지 국가가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총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산업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기업이 나서도록 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석 위원 세제 인센티브하고 규제 완화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세제든 규제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템이 정해지면 이 아이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재정, 세제, 규제, 인력 여기다가 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넣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런 목표가 없어졌을 때 다 그냥 하라 그러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해 주시고. 타기팅을 잡아서 그에 관련된, 고구마 뿌리를 하나하나 캐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잘 한번 해 봅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의를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저도 후보자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 장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도 계셨고요. 또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께서서는 베네수엘라 예를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형 기본소득이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노동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먼의 네거티브 인컴 택스(negative income tax) 관련해서 맥을 같이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연계하고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이자 일자리 연계까지 같이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무차별 지급은 아닌 것이고 차등 지급을 한다는 그 말씀이 시짚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 대신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뭐를 먹고살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으로 지금 하고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런데 이 개념으로 가게 되면……

○위원장 임이자 장애수당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데 그 부분보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딜리버리하는 비용도 적게 되고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이자 서울형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한번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거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는 일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탈수급하는 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어 봤을 때 먼저 장점으로 보게 된다면 복잡한 기존 복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낮은 행정 비용으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재분배 체계적으로 해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약간 보장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근로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복지 체계를 전면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또 소득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걸 EITC하고 접목해 가지고 어떤 일을 좀 해 보자 했을 때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소득 파악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고 또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숫자 민주주의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뿐이고 아직 이게 공론화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임이자 하도 대통령께서 ‘기본, 기본, 기본’ 하셔서 우리가 놀라서 그래요.

2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얼마 전에 추경을 할 때 개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여기에 8000억 투입이 되는데 반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혜택받는 사람이 추정하기는 113만 정도가 될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시다마는 그중의 하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되는 게 채무자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름하여 채무자 로또다. 거기에 딱 끊겨서 채무도 변제를 받고 연체 기록도 없어지는데 살짝 넘은 사람은 계속 갚아 나가고 있고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시 좀 명백하게 보면 좋겠고. 그 안에 외국인에 대한 변제 부분도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의 채무 변제를 하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들, 미래세대는 관심이 많으니까, 왜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또 짐을 떠맡아야 되냐, 이런 불편부당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반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이럴 때 부총리후보자가 얘기하시는 AI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봐 주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삼권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경제관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경제관리 능력보다는 정치적 외풍이 왔을 때 잘 견디면서 원칙 있는 정책을 고수해야 되는데 뚝심과 결단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잘 견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5공 때 있었던 김재익 경제수석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든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기조로 경제를 고수했었어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28%인데 7%로 떨어지게 되고 금융실명제 추진의

근간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가장 중요했던 게 내가 경제를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 방향이 아닌 국가 방향을 선택하는 데는 이분처럼 후보자의 철학이나 책임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이번에 후보자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단의 말, 소감, 소명감을 한번 얘기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격려에 감사하고요. 제가 김재익 전 수석님처럼은 못 따라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한국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불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각오로 5년 안에는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꺾인 성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떨어지는 속도가 또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해 보자, 진짜 아이템 베이스로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혹시나 임명이 되면 진짜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현장을 만나고 아이터를 선정하고 그래서 해 보자,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뿌리를 찾아가듯이 하나하나 꿰 쥐 가지고 한 개를 성공하면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차 보충질의에서는 3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서면답변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에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답변을 하면서 언론은 바로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 법인세 인상한다 이렇게 벌써 언론에 시그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답변은 원론적 답변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인하 한 5%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5%에서 24% 했지요. 1% 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걸친 총 법인세수가 62조 5000억인데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 9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법인세 인화로 발생한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복합적으로 경기침체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사실 주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러-우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급속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온 복합적인 경기침체가 주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낮아진 법인세율이 마치 세수 핑크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이 받아들이면서 후보

자가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렇게 시그널을 언론들이 보내고 있어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지금 참 고민이에요. 고민이 지금 법인세가 최근에 너무 많이 줄어 들고 있어서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복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상범 위원 예, 복합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참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AI 대전환을 위한 재원은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탈루라든지……

○유상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비과세, 탈루하는 것 맞고. 지금 면세율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답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재정정책이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재정승수가 높은 곳으로 집중하는데 그것이 후보자가 보는 건 AI 산업에 투자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법인세 인하를 시그널로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 후보자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건 정확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래서 저는 다 오픈해 놓고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결국은 응능부담이라든지 또 조세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답변들 중에 제가 진실성이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질의에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이 여쭙본 부분 중에 ‘배우자가 아주 멀리 떨어진 주식회사 오송이라는 회사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했더니 후보자는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가 주식회사 오송이라는 데를 다니는 걸 모르셨다는 얘기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오송에 다니면서 어떤 형태로 다녔는지나 이런 건 진짜 사실은……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다니는지는 몰랐더라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배우자분한테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엄밀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요. 보면 배우자께서 10년 넘게 이 회사를 다녔고 기준소득이 계속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우자께서 이 회사에 오랜 기간 적을 두고 월급을 받아 왔다는 것은 후보자께서 아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진짜 몰랐고요.

○천하람 위원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배우자께서 실제 출근하는 모습을 못 보셔서 그것을 모르셨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가 뭐……

○천하람 위원 10년간 재직하는 회사에 어떤 형태로 다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배우자를 잘 관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천하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의 문제보다 후보자의 답변에 사실 더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도 보시면 이게 단순히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 여기에 지금 후보자께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진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배우자께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후보자를 피부양자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보자한테도 우편이 와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퇴직하셨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자산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소득, 그러니까 보험료가 훨씬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를 안 해도 되셨던 겁니다.

이게 본인한테 우편도 가고 다 알림이 가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는 후보자 본인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이것 전혀 몰랐다, 후보자 얘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진짜 신경을 안 써서 제 불찰인지 모르지만 진짜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침에 말씀하신 모두발언부터 AI 말씀 많이 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AI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 바이오·반도체·양자·이차전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산업을 좀 살려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AI가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데 AI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파고들기 위해서는 R&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R&D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잘려 가지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경쟁력도 떨어졌는데 어쨌든 AI 예산, R&D 예산 살리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월 중순인데, 말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가, 정부 예산이 거의 편성이 많이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지금 거의 많이 된 상황입니다.

○정일영 위원 많이 된 상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어떻게 그러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지금 후보자의 상황에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정일영 위원 후보자님의 생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빨리 임명이 되면 AI 쪽은 최대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일영 위원 전체 내년 예산을 좀 살펴보고, R&D 예산하고 AI 예산 지금 각 부처 또 다……

그 컨트롤타위는 어디예요, AI의? 우리 기재부예요, 국가AI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과기정통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어차피 AI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재부 모든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일영 위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종합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서……

○정일영 위원 다 합해서 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모아 가지고 예산에 꼭 좀 반영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AI 분야가 워낙 크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부탁을 드려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AI 재원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실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 개편, 무슨 예산실을 정권 입맛에 맞게 대통령실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그것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 쓰도록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제가 예결특위도 있고 등등 보면 이번에도 추경 편성하는데 10월 말에, 11월 달에 개최되는 APEC이 너무나 중요한데 APEC 예산 30억 넣은 것도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 못 넣었어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국격 또 경제 측면에서 APEC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실을 좀 개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실만 떼서 다른 데 가져다 놓으면, 총리실 어디다 가져다 놓으면 뭐 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사람을 좀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꿔야 해요, 예산실 문화를. 반 정도는 직원들도 교체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임명되시면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최은석입니다.

아까 이어서 상속세 관련되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이 기업 경영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글로벌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싱가포르 사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왜 싱가포르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싱가포르로 부자들이 많이 이전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자산관리 규모가 한 23% 성장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초고액 자산가들이 27년까지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이렇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2분기에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이 4.3%입니다. 1분기에는 4.1%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기에 싱가포르의 경제가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는 데에는 글로벌에서 모여드는 자금들 이런 게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단순히 이렇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을 받기만 하나 하면 뉴스에도,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싱가포르가 들어오는 자본에 대해서 싱가포르 내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세금이 없지만 그걸 보고 몰려드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내에서 고용을 의무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싱가포르 경제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도시국가로서 아마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삼성이 12조 원에 대한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에 전자나 SDS, 생명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다음에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16조가 출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속세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넥슨 관련된 사례인데 정부가 지금 2대 주주인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이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실은 기업 경영이나 또 특정 산업의 경제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율의 여러 가지 폐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부자증세라고 하는 것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나 조세체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법인세도 마찬가지지만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인 것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조세체계나 세율 같은 것들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들을 한번 꼭 좀 명심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открытая система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рынка. 한번 검증은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 제가 경청하고 있고요. 지금 특정 세목에 대해서는 어떤 세목은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또 그 세목을 했을 때는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새겨서 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합리화할 부분은 합리화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중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글로벌경쟁력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공감대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후보자님,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사는 분이 밥을 해서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태워서 회사에 데려다 줘요.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들이 다 일을 도와주지요. 또 끝나고 나면 운전기사분이 차를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면 집은 청소 누가 다 해 놓고 밥도 해서 누가 줍니다. 그러면 재벌 회장은 그분들한테 돈을 주지요. 누가 누구를 돌보니까? 재벌 회장이 직원들을 돌보니까, 수많은 보통시민들이 재벌 회장을 돌보니까? 누가 누구를 돌봐요?

재벌 회장은 돈밖에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벌 회장이 1년에 돈을 200억 받아 갑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근거가 뭐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200억 받은 만큼 일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200억 받아 갈 근거를 못 댁니다.

그러면 반대로 200억 돈을 받았으니까 나라에서 세율 90% 해서 180억 내라, 이것 꼭 근거 있어야 되나요? 근거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200억을 벌 만 하게 그 사람 일했을까요? 그러면 200억 받은 사람을 100억만 돈 준다고 하면 그 회사 실적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근거가 없어요.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돌보니까? 돈 몇 푼 준다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무슨 시혜를 베풀어요?

상속세 부분에 관한 말씀 드리지요.

대한민국 땅을 누가 만든 사람 있어요? 건물을 자기가 지었습니까? 부모가 받은 것으로 물려받잖아요.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지요. 세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로소득 아닙니까? 노력해서 번 소득 아니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자산 격차, 거기에 나아가서 소득 격차 때문에 수많은 격차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물림. 기재부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게 부의 대물림입니까, 가난의 대물림입니까? 이제 명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부의 대물림을 잘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목표입니까, 가난

의 대물림을 끊어 내는 게 목표입니까?

후보자,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어차피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으로 생각할 거고요 또 가난한 분들은 하는데…… 어쨌거나 정부는 이 중간에서, 돈을 가진 사람도 또 기여를 하고……

○최기상 위원 돈을 가진 유무를 저는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자본주의 논리상 자기가 노동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력 안 하고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있고 주식 투자해 놓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닌 사람들이 잘사는 것은, 이게 시장주의에 맞습니까, 공화국 정신에? 그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기상 위원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근거가 뭘니까, 도대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세지출, 국세감면을 추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어졌지요. 그런데 조세지출, 그러니까 국세감면을 한도가 직전 연도 3년 플러스 0.5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무병해요. 갈수록 조세지출 늘어나면 국세감면을 한도도 늘어나요. 이것을 여기면서 계속 상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리 끊어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조세지출 결산서, 이게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같이 공동발의한 겁니다. 왜 유독 조세지출에 관해서만 예산서는 있는데 결산서가 없냐,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술한 숫자 장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서, 제가 수없이 지적을 해 드렸어요, 최상목 부총리 때. 제 질의를 잘 검토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다음, 지금 가업상속공제 이것 조세지출이 얼마 나는지 나중에 봐야지 알아요. 600억까지인데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개천에서 용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사실은 가업상속공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애초 뜻을 잃었지요. 이것은 그냥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숫자를 잘 살펴보세요. 이게 국내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입니다. 일반 회사 한번 보세요. 30~100% 미만 거기가 50% 익금불산입률이 작동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서 50% 이상이 100%가 됐어요. 누가 이득을, 어느 숫자에서 이득을 볼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행 20% 이상, 직전에는 30% 이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분율은 20%로 낮춰 놔어요.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눈 겁니까? 기재부는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이 칸칸들을 나뉘을까요? 누가 혜택을 볼까요? 어느 정도 혜택을 볼까요? 이것 항목에도 안 나옵니다, 조세지출 항목에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삼성전자 23년도에 해외 자회사에서 29조 배당 가져왔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수출 목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의제도 폐지됐어요. 이것 안 보이는 제도예요, 조세지출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GS칼텍스, 이게 최근에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GS칼텍스가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해도 되는 사업을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배당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싱가포르예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꼭 만들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아까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관련해서 달빛고속철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게 지금 예타면제 신청 들어가 있는데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동서, 대구에서 광주, 자가용이나 버스 말고는 방법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진작에 이런 동서 간의 교통망, 철도망이 좀 뚫려 가지고 동서가 자주 교류해야 예전보다 많이 좀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감정도 생기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타면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몇몇 위원들께서 세수추계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기재부가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민간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몇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세수추계위원회 개최되지 않았고요 또 민간 전문인력 채용도 아직 구체적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고 AI 및 미시데이터 활용을 통한 세수추계의 모형 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나 기재부가 이렇게 개선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이행 안 되고 있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신뢰를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한 것이라면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꼭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챙겨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3년, 2024년 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추경이 아닌 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배정 유보, 불용 등으로 대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 달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해서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본 위원은 작년 하반기 때 최상목 당시 기재부장

관개 반복되는 세수 오차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쯤에 다시 한번 세입을 추계하는 방안, 롤링 포캐스트(rolling forecast)라고 그때 명칭을 했는데요.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제안을 했고 그 당시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 그리고 11월 예산심의 전에 세입을 다시 추계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취임하게 되면 꼼꼼하게 한번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오늘 정책질의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개인 의혹 관련해서 질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간단히 정책질의 좀 여쭙볼게요.

아까 AI 관련해 가지고 의지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00조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00조를 투자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재원은 적어도 100조는 민간·정부 이렇게 마중물 해 가지고……

○박대출 위원 투자를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도 보텀업, 톱다운 그다음에 호리젠탈(horizontal) 해 가지고 사업이 생기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 방식은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의 주체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 정부들이 늘 경제정책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알게 모르게 꿈수피우는 게 있거든요. 정부가 맨날 반도체에 어떠니 AI에 몇 조를 투자한다, 투자하겠다. 정부는 투자의 주체가 아니지요? 정확한 의도는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투자하도록 하겠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정부는 투자의 주체가 아니라 투자를 이끌어 가는 주체지요. 정부의 역할이 관치투자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주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한번 짚은 거고요.

확장재정을 기재부의 기조로 가져가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번에는 확장재정을 기본으로 한다. 물론 좋습니다, 각 정부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아까 그 말씀 하시면서 신용등급 하락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신용등급 하락이 없는 확장재정, 지금 이렇게 전제가 달린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신용등급 하락은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박대출 위원 신용등급 하락 없는 확장재정 아납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그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신용등급 하락 없는 기준점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그러려면 재정 운용의 성과가 나서 돈을 썼지만 이 돈이 오히려 미래에는 비전이 된다 하면 또 그런 측면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돈을 썼는데 비전이 없다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쨌거나 하여튼 성과를 내는……

○박대출 위원 부작용이나 나쁜 경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장재정을 쓰겠다는 이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래서 아이템 베이스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기존 입장으로 재정준칙 도입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지금 재정준칙 중에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역할 그다음에 재정을 긴축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템 베이스로 재정을 확장하고 그러면 그 아이템이 성과를 내고 그러면 다시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지고 또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재정준칙 도입이 기존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할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포기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아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포기하는 거는 아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한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박대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재정준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재정준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역할도 재정준칙……

○박대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럼요.

○박대출 위원 포기하지 않겠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스펠(span)을 이얼리(yearly)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봐서, 이 기간은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성과를 올려서 중장기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한말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권의 기재부가 아니고 국민의 기재부, 대한민국 기재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AI 재원 투자에 절대로 관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게 시장 베이스로 가고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하겠고요. 결국 재정이라는 거는요 돈을 아낄 때는 아끼고 돈을 쓸 때는 쓰지 않으려면요, 지금은 재정이 성과를 안 내고는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박대출 위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걸 감안하는데 생산성, 성과를 내는 재정 운용 이것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특활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활비의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책임성 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또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예산실장으로 계실 때도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 유효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정부의 재정은 투명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기밀성…… 기밀성이라는 또 특활비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리고 또 투명성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서한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지 또

디지털세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지키고 또 국내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응책 또는 입장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제가 아직은 후보자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국익, 실용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패키지 딜 이런 식으로 해서 국익하고 실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이나 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산업별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 혁신이 되든 구조조정이 되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재부 입장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을 하고 제가 취임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박수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전체 세입이 328조 4000억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세목별로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부가세 전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 의견을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인데요. 후보자님이 법인세를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어디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낮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을 했는데 그다음 해인 2019년에 인상을 했으면 법인세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를 않았거든요. 2020년에는 오히려 법인세가 더 떨어졌어요, 법인세 수입이.

그러니까 세율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경기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세율 올렸는데 왜 세입이 안 늘어나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p 내린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율하고 관련 있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인세율 인상할 때 기재부 내부에서도 말렸습니다. 기재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기준이 순간적으로 세입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만 세금 많이 매기면 어떻게 우리 기업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요 국가 법인세율 변화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이에 인하를 하거나 유지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7개 나라고요 인상한 나라가 11개가 있는데 레이스 투 더 보텀(race to the botto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그 나라들이 전부 경쟁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에 반해서 우리가 더 올린다? 그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거지요.

아일랜드 법인세 한번 볼까요? 아일랜드는 40%대이던 법인세를 연도별로 낮추어서 12.5%까지 낮추고 지금도 12.5%라고 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10%p 정도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글로벌 기업들 본사들이 전부 이사를 가서 아일랜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 회사들 전부 지금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게요. 인구는 우리가 2.2배 많고요 영토는 2.8배가 큰데 1인당 GDP 우리 3만 7000불 정도 되는데 아일랜드 지금 몇만 불입니까? 10만 불 넘는 국가가 돼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세입에 그해 플러스마이너스 이걸로 세율 결정하시면 큰일난다. 전반적인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되고 그걸 더 앞서간 아일랜드가 성공한 사례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세제를 보는 방향으로 효율과 공평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진짜 이게 응능부담인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따져 보고……

○박수영 위원 글로벌 스탠더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글로벌 스탠더드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디 있어요, 세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말씀들 많이 있고 그러시는데……

후보자님, 한전의 총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부채가 한 400%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위원장 임이자 400조 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400%.

○위원장 임이자 400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400%. 그게 한참 높았다가 최근에는 아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AI 산업을 하려면 전력이 필수고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정준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빚내 가지고 쓸 데 쓰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벌어들여 가지고 빚 갚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진짜 AI 대전환 시기입니다. 이때 투자를 하지 않고 건전성만 유지하면 오히려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투자를 늘리되 효율, 성과를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집중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 적자가 34조 7000억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국가부채에 대해서 기재부는 D1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D2·D3·D4……

D3·D4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2022년도까지 그 통계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는 우리 국가부채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먹고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 확보에 있어서 AI로 대전환하겠다 하는 데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렇지요? 5년인데 5년 내에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잔뜩 벌여 놓고 나서 나중에 쓰러졌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국가부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실패한 정부로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뭘 책임집니까? 퇴임하시고 나면 연금을 안 받아 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로 책임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뢰도 가고 상당히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경청하셔서 늘 항상 소통하시고 또 항상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본 위원이 계속 오늘 이거 안 해 주면 오늘 안 끝낸다고 그랬는데 다……

○정태호 위원 저도 한말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래요. 하세요.

○정태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임이자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난 고맙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정태호 위원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400조 원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때 미국이 국가부채비율이 100%이던 것이 130으로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늘었냐 하면 약 7%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더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소상공인과 국민들한테 전가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늘어나 버렸어요, 대출을 너무 해 줘 가지고.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대출을 해 주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정부가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지금도 가장 미국이 강하잖아요. 3%, 4%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덜 써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자꾸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를 늘려서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그때 코로나를 경제적으로 가장 잘 극복했다고 해서 G7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속 20~21년 초청을 했었어요. 상석에 앉혀 가지고 그 비결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저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정태호 위원 아니, 여러분들도……

○위원장 임이자 미국은 그래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건달 힘이라도 있지요. 그만하시고요.

○김태년 위원 통화국 아닌 데도 다 그랬어요.

○위원장 임이자 그만하시고요. 우리끼리는 나중에 토론회 때 하시고요.

후보자님, 제가 아침에 모두발언에서 국회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좌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훈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시드머니라도 좀 마련해 주자, 아까 한국형 기본소득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의 책임도 일정 있다라고 봅니다. 사용자들한테 미루기에는 사용자들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후보자……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받으신 답변서 좀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 당부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엄중한 현 경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구윤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도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본인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통상 업무 관련해서 기재부 수장으로서 구윤철 후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간사 두 분이, 박수영 간사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 좀 협의해 주시고 지난번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의견도 같이 경청해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구윤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인선 임광현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청가 위원(3인)

안규백 윤호중 정성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출석 공직후보자

구윤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차관보 윤인대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세제실장 박금철
대변인 강영규
감사관 장영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이상 2건 7월 1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1)

이상 2건 7월 16일 회부됨